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결한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8월 18일 (토) 제 169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국인, 선진국 중 '기도' 가장 많이 한다!

퓨리서치, 전세계 세대별 종교차이 설문 조사 결과 미 성인 55% 매일 기도

“하나님은 족었다?” 지난 1966년 ‘타임’은 커버스토리로 도발적인 질문을 내걸었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커버지만, 당시만 해도 점점 세속주의가 강화되는 듯 한 미국 사회의 추세를 정확히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요즘 미국 사회를 보면, 미국에서도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세속주의 경향이 강화되리라는

전망은 다소 설부른 결론이었다. 미국은 여전히 대단히 종교적인 나라이자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로, 이는 부유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경향이 다(Americans are far more religious than adults in other wealthy nations).

실제로, 퓨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The Age Gap in Religion Around the World By several measures, young adults tend to be less religious than their elders: the opposite is rarely true), 미국인은 캐나다, 호주, 그리고 다른 대부분 유럽 국가의 국민보다 더 자주 기도하고, 매주 교회를 비롯한 종교 시설에 가는 사람이 많았으며, 자신의 삶에서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 많았다.

예를 들어 미국 성인의 55%는 매일 기도한다고 답했다. 이는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이들이 캐나다 25%, 호주 18%, 영국 6%였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치다. 유럽 국가들의 평균은 22%였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와 국가의 경제력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매일 기도하는 이들의 비율만 놓고 보면, 미국은 선진국보다 남아프리카공화국(52%), 방글라데시(57%), 볼리비아(56%)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개발도상국과 더 비슷하다.

미국은 조사 대상 102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의 비율과 부유한 정도(1인당 국내총생산)가 모두 평균을 상회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머지 모든 나라는 매일 기도하는 국민의 비율이 40%를 넘지 못했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경제가 발전하면 종교적 색채가 옅어지고 세속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 유독 미국에서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학의 오랜 연구 대상이었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사상가 알렉시스 토크빌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종교가 미국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유달리 큰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기도

세속화 물결로 비종교적 40대 미만 급증 메타교회로 목회방향성 시급 변환 요구돼



퓨리서치 센터 조사결과 선진국 중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했다. 현대 사회학에서 지난 수십 년간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가설은 종교의 영역에서도 미국에서는 이른바 시장주의가 작동했다는 것이었다. 즉, 다양한 신념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다른 종교들이 자유롭게 경쟁했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철저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양한 종교가 성장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일부 사회학자들이 소득 불평등과 종교의 성공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기

도 했다. 즉,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커진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회학자들의 논리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다른 이유로 일상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며, 그래서 자연히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정신적 위안을 얻으려 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리더로 성장할 때, 꼭 잠재적 리더 찾아라!

리더십저널, 데이브 얼리 목사가 전해주는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의 8가지 습관”

A교회 PTA 회장 송 집사는 이번 여름을 정말 힘들게 보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VBS부터 모든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주중이나 주말에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행사들을 지원해주고 식사를 도맡아서 봉사했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3년째 PTA 회장으로 교회 교육부를 섬기고 있지만, 이제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얻은 것은 허리 통증으로 거의 매일 침을 맞으면서 몸을 추스르고 있다. 그러면서 회장직을 물려줄 학부모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사람이 없다. 송 집사는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 새로 부임한 교육목사를 위한 저녁 모임에 식사를 준비하러 가고 있다.

데이브 얼리(Dave Earley) 목사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12명의 교인을 시작으로, 지금은 2천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First Baptist of Grove City, Ohio)로 성장시켰다. 얼리 목사는 송 집사와 같은 교인을 가진 평신도 리더에게 “주변에서 잠재적이거나 숨어있는 리더”를 찾아야 한다고 권면한다.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5-6명의 학부모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봉사하지만, 건강한 리더십의 교체가 이뤄질 때 지치지 않고 다음 사역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3C-적합성(Compatibility), 성품(Character), 역량(Competency)
성품-F(Faithful)A(Available)I(Initiative)T(Teachable)H(Honest)

당신이 리더로서 성장해갈 때 잠재적인 리더들을 찾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ey)는 8개의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700명의 유능한 소그룹 리더들을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성정하며 성공하는 소그룹을 인도할 잠재력은 타고난 재능이나 교육, 매력적인 성격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무엇보다도 해답은 노력에 있다.” 리버티 대학에서 제자훈련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데이브 얼리 교수는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의 8가지 습관(The 8 Habits of Effective Small Group Leaders)”에서 소그룹 내에서 잠재적인 리더들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 노하우를 말해준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선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선대학교 |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예술서적 / 성경 / 영적 책 / 기증 / 도매판매 / 영성서적 / 영성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 뉴저지 Tel. 201) 346-0030
40-21 159th St. #118 Flushing, NY 11358 | 5 Binnard Rd. Toms River, NJ 08052

문의 347-952-5442 | 1-800-404-1171
E-mail: gospelmail@hotmail.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행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2면		7면
시론 최해근 목사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성탄 축하예배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시론

밖에서 보면...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다른 종교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요즘 한국 불교계가 판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12일 제35대 총무원장에 73%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던 분이 불과 1년이 되지 못해 여러 가지 추한 소문들이 돌면서 총무원장직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불교계의 여론에 밀리고 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 어른의 위치에

계신 종정스님이 명예스럽게 총무원장직에서 용퇴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읽다 보면 낯선 단어들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총무원장은 어떤 직책이며 종정스님은 또 어떤 직함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듣거나 읽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 이런 식으로 머리속에 대체적인 그림이 잡히지만 불교계의 뉴스를 대할 때면 너무 낯선 단어들 등장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의미부터 찾아야 비로소 뉴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계 외의 사람들에게는 낯설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에서 사용되는 직책이나 조직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찰회, 노회, 총회, 연회, 지방회 등등... 거기다 각 회마다 장(長)이 있습니다. 시찰회장, 노회장, 총회장, 연회장, 지방회장 등등.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면 생소하고 어렵기는 불교계를 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소한 직함이나 조직에서 뿜겨 나오는 이야기 들 때마다 아름답고 고개가 숙여지는 내용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내용 자체가 전박스럽고 저자거리의 강박들이 벌이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라면 뉴스 그 자체가 보고 듣는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무슨 목사들이, 무슨 스님들이, 무슨 직책을 놓고서 물러나야 되느냐 물러나지 않아도 되느냐 하며 싸우는 모양은 둘 다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난 8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목회세습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국원 15명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 결과 8대 7로 세습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이 너무 너무 복잡해집니다. 세습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초등학교 국어수업부터 시작해야 하는 판국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교회 밖의 사람들 눈에는 무지하게 단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습이 세습이지 뭐 그리 복잡하냐?' 이런 반응들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가을에 있을 총회에서 하겠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교계와 기독교계가 가뜰이나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2018년 여름을 더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너무 너무 더운데 '좀 쉬었다가 가을에 선선할 때 그때 싸우면 안될까요?' 하고 부박하는 느낌입니다.

교회여, 빛을 포기하고 추락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이여!

더 늦기 전에 선선한 가을이 오기 전에 그대들이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창조주의 말씀 안으로 돌아감이 어떨런지요...

살림.

thechoi82@yahoo.com

북한, “현대판 노예” No.1 종주국 선정

뉴스위크, 인권단체 WFF의 “2018 세계노예지수” 보고 결과 보도

새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대판 노예'의 세계 수도다. 베일에 가린 나라인 북한의 강제노동 인력이 약 260만 명에 이른다. 한마디로, 인구 대비 '현대판 노예'의 비율이 가장 높다.

호주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WFF)'이 발표한 '2018 세계노예지수(Global Slavery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강제노역이나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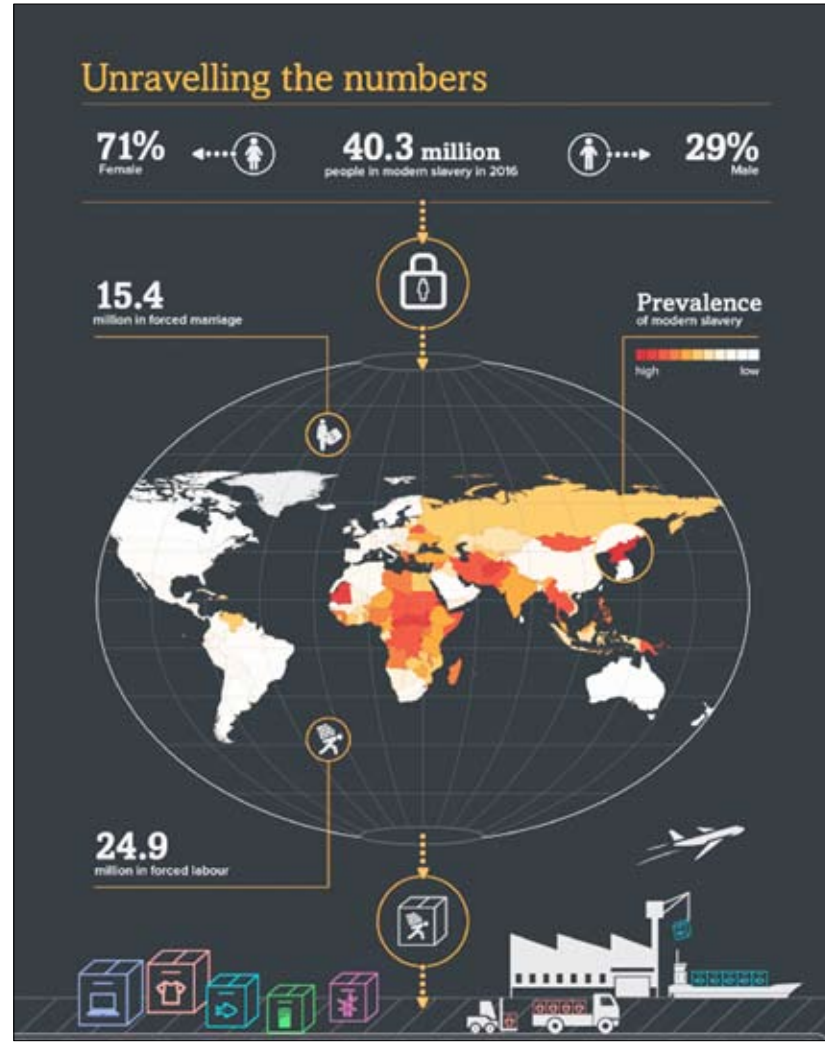
제 결혼 등으로 현대판 노예 처지에 몰린 사람은 세계 전역에서 약 40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소녀를 비롯한 여성은 약 71%, 나머지는 소년을 포함한 남성이었다. 또 지난 5년 동안 약 8900만 명이 수일부터 수년까지 어떤 형태로든 노예 상황을 겪었다(NORTH KOREA IS SLAVERY CAPITAL OF THE WORLD, REPORT SAYS).

WFF는 48개국의 7만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 10명 당 1명꼴로 인구 대비 '현대판 노예' 비율이 가장 높았다. 조사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 WFF는 북한의 강제노동 현황을 분석하는 특별 프로젝트까지 만들었다.

그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50명을 인터뷰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농사나 건축, 도로공사 등에 투입돼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현대판 노예' 실상에 대한 증언을 수집했다. 그중 49명은 어렸을 때나 성인이 된 뒤 어떤 형태로든 노예 처지였다고 말했다.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강제노동'의 국제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경험을 했다는 뜻이다.

조사관들은 “강제노역이라는 이런 인권 침해는 단순히 국가의 과도한 행위만이 아니라 체제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제도화된 강제노동은 어린 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그 학생들은 강제로 노동에 '동원'된다. 이런 집단 활동에서 어린이들은 한 번에 최대 2개월씩 농사나 철로 부근에 떨어진 석탄 쪼기 등 힘든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 학교는 그런 노동에 보상 받지만 학생들은 전혀 얻는 게 없다. 참가를 거부



북한주민 10명 중 1명 장시간 농사, 건축, 도로공사 등 강제노동에 시달려

2가지 핵심요인: 권력유지 억압 정권과 법치·사회질서 무너뜨리는 지역분쟁

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한 탈북자는 “우리 봄이나 여름에 약 한 달 동안 잡초제거에 동원됐다”고 말했다.

“수업을 오전에 끝내고 오후엔 밭에 나가서 일해야 했다. 가을엔 더 오래 일했다. 약 2개월 정도였다. 수확과 관련된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성인의 경우 상황은 더 나쁘다. 기아의 위험 아래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아주 힘든 일을 해야 한다. '전투'에 동원되는 성인은 70-100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 동원을 거부하면 식량배급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탈북한 한 남성은 조사관들에게 “노동 지시가 떨어졌을 때 따르지 않으면 식량배급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직장을 가져도 급여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정권에 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식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주민은 끔찍

한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다.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 북한 주민은 거꾸로 돈을 내고 급여 없이 고용된다.

탈북한 한 남성은 이렇게 설명했다. “직장을 그만두면 잡혀간다. 두 달 이상 출근하지 않아 실업자로 적발되면 조사를 받고 노동교화소에 수용된다. 보통 수용 기간은 6개월이다.”

시인인 장진성 씨는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위 내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에서 대남 심리전 및 방첩활동을 하다 2004년 탈북했고 지금 '세계노예지수' 패널리스트로 활동한다. 그는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에 북한에선 국가의 체제 선전이 막강해 많은 주민은 자신이 착취당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전 지도자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끼는 시인이었지만 강제 노동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믿었다. “이게 삶이다. 삶이란 이렇게 돌아간다. 순응하는 수밖에 없다.”

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장 씨는 “모든 주민이 물리적인 독재뿐만 아니라 감정적·심리적 독재 하에 있다”며 북한의 ‘공포정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 시장에서 굶주린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100원에 내놓은 상황을 목격하고 2008년에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라

는 시를 발표했다).

‘세계노예지수’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지휘한 호주 자선단체인 민더루재단의 피오나 데이비드 조사 부장에 따르면, 불운분자로 낙인찍힌 북한 주민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특히 ‘지저분하고 위험하며 모멸적인’ 일을 강요당한다.

조사관들은 “북한의 강제노동과 관련해 드러나는 그림이 특이하면서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북한 현지에서 더 폭넓은 노동자 표본에 접근하기가 불가능하지만 탈북자들이 돌아온 경험이나 북한 정권에 의해 저절로 지는 ‘현대판 노예제’의 잔혹한 현실을 여실히 반영한다는 점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조사관들은 이런 결과가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잘 보여주며 정권이 생존을 위해 그런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에리트레아와 부룬디도 북한과 함께 현대판 노예 비율이 높은 상위 3개국의 불명예를 안았다. 데이비드 조사 부장은 “이들 3개국에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정부 주도의 강제노역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현대판 노예’가 수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는 전체 인구 13억 명 중 1840만여 명으로 집계된 인도였다. 인도와 함께 중국·파키스탄·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이 ‘현대판 노예’의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국에 꼽혔고 이들 나라가 세계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지역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상황이 최악이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9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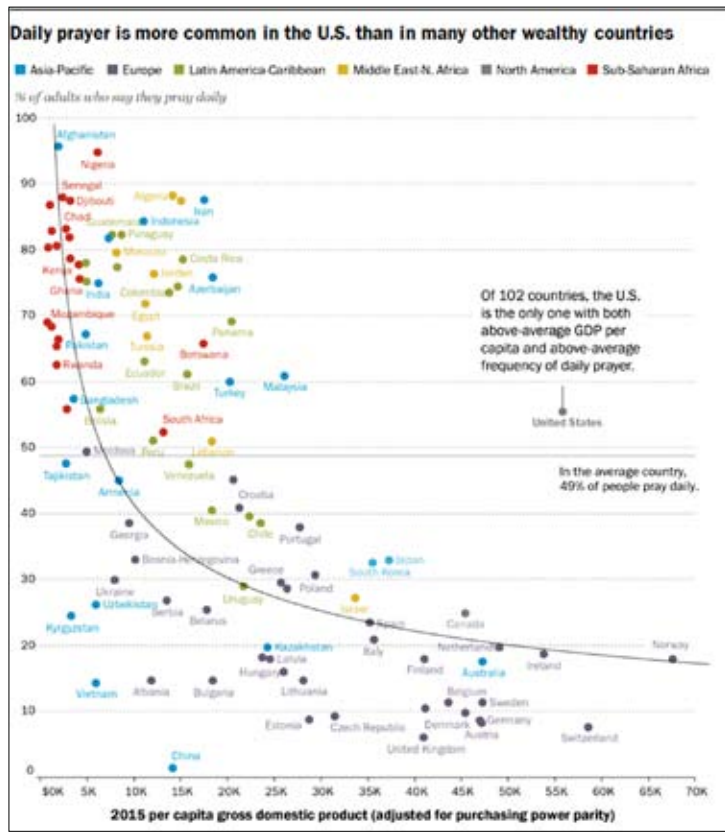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미국인, 선진국 중 '기도' 가장 많이 한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다른 선진국보다는 훨씬 더 종교적이라고 해도 서구 국가들 대부분을 훨씬 세속화의 물결이 미국을 아예 비껴가지는 않았다.
실제로 퓨리서치센터가 앞서 진행한 다른 조사 결과(U.S. Public Becoming Less Religious Modest Drop in Overall Rates of Belief and Practice, but Religiously Affiliated Americans Are as Observant as Before)를 보면, 미국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의 숫자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가 분명히 나타났다.
또한, 미국인 사이에서도 세대 별로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40세 이하 미국인들은 40세 이상 미국인들보다 기도도 덜 하고, 교회 등 종교 행사에도 덜 참여했으며, 중

교를 믿는다는 사람도 적었다. 이는 앞으로 세대가 바뀌수록 미국의 종교적인 색채가 얽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결론으로, 미국교회의 목회 방향성이 변화돼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 성장구조의 목회, 양이 질을 결정한다는 마케팅 전략의 목회에서, 성숙구조의 목회로 돌아서야 한다. 교인이 아닌 제자 즉, 질이 양을 결정하는 십자가 정신의 목회가 요구된다.
성장구조는 데이터만을 강조하고 실용주의 제단을 숭배하고 성공을 수치로 측정한다. 이에 대해 성숙구조는 한 생명의 구원을 강조하고 복음의 원리를 중시하고 성공이라는 결과보다는 헌신과 봉사 그 자체를 중요시한다.
결국 미래교회는 메가교회(mega-church) 목회가 아니라 메타교회(meta-church) 목회가 돼야 한다. 메가교회란 숫자와



성장과 성공에 강조를 두는 교회지만 메타교회는 질과 성숙과 헌신에 강조를 두는 교회다. 메가교회가 대형교회라면 메타교회는 열린교회, 스스로 경신하는 교회다.

문화 칼럼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목양 헬프 대표

돌이켜 보니 이상한 용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용감해야 된다. 참된 믿음은 용기와 용감을 동반한다. 특히 영적 지도자에게는 남 다른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면서 강하고 담대하다고 반복 강조하셨다.
그런데 나는 요즈음 반복해서 느끼고 회개하는 것은 나의 용감이 이상한 용감이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그것도 점점 선명해지는 것은 은퇴 이후이다. 그리고 또 병든 이후이다.
무엇보다 설교가 용감했다. 물론 이상한 용감이다.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은 설교를 그때는 정말 용감히 외쳤다. 조금도 주저 없이, 내가 설교처럼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상관없었다. 용감히, 담대히 외쳤다. 생각해 보면 이상한 용감이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믿으면 된다고 위로했다. 강하게 강조했다. 그리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다. 용감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한 용감이었다. 내 속에 내재된 확신과 믿음이 말대로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상한 용감이다.
사랑없음을 비판하고, 인본주의 신앙을 책망했다. 그럴 때는 더욱 용감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삶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외쳤는지? 정말 용감했다.
물론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베드로, 가롯 유다 너무 쉽게 정죄했다. 물론 맞는 정죄다. 거침없는 용감한 정죄다. 그러면서 이상한 용감으로 양심을 혼드는 것은 무엇일까?
부끄럽다. 한없이 한없이 후회스럽기도 하다. 이상한 용감이 부끄럽다. 자꾸만 눈물이 난다. 회개한다. 때 늦은 후회 같기도 하지만, 그때 회개를 외치기보다 회개하지는 못했을까? 중심의 회개, 책망하기보다, 살지는 못했을까? 고백 중심의 헌장이 되지 못했을까? 왜 이상한 용감인줄 깨닫지 못했을까?
큰소리, 박력, 책망, 아! 이상한 용감이여!
부끄럽다. 죄송하다. 회개하고 또 회개한다. 세례 요한처럼 진정한 용감이 부럽다.
박수 받으면서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칭찬과 박수는 인생의 종합 비타민이다. 그러나 칭찬과 박수도 습관화가 되면 가치를 상실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상사에게 다르게 대하는 것일수록 아무 성으로 상냥성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한때 선물이 뇌물이 되고, 순수한 인정의 교제에 따라 다니던 선물이 살아 찌고 새끼를 치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비극적이고 요란하기도 했던 김영란법이 생긴 것이 아닐까?
우리 사회가 상식으로 구불러 가면서 자연스럽게 맞추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적지 않다. 법을 만들고 일일이 제도를 만드는 것, 무조건 찬성하고 응원할 일이 아니다. 물론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과잉이 되고, 부담이 되니 부득불 만든 제도이기도 하고, 옹졸한 법조인들의 이벤트성 아이디어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면 칭찬과 박수가 없는 살벌한 사회라고 상상해보라. 이 또한 얼마나 재미없는 맛없는 사회가겠는가? 그러므로 칭찬과 박수 격려와 용기를 주는 사회적 분위기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그런 사회가 될 때 기쁨이 제대로 처진 기계처럼 부드럽게 잘 돌아갈 것이다.
매마른 계절을 그치고 있다. 봄바람이 가지를 흔들며 물을 퍼 올려 가지를 연하게 하고 잎이 천지를 싱싱하게 한다. 물론 지역마다 나라마다 계절적 격차는 있지만 계절은 반복되므로 새롭게 하고 있다.
나는 박수에 인색하지 않는가? 사회를 부드럽게 만드는 체질화된 일원인가? 아니면 살벌한 사회주의 선동박수에 길들여 있지 않는가? 박수가 변화되면 인생이 변화되고 사회는 부드러워진다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모두 부드럽고 향기 나는 박수, 칭찬,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 조금 더 좋아지는 사회가 될 것은 분명할 것인데... 그동안 사회주의 선동전략과 기계화된 박수와 찬동은 순수성은 상실되고 살벌과 맹종의 사회를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다. 살기 좋은 사회는 진정한 칭찬과 박수가 있는 사회일 것이고 그리고 그 칭찬과 박수는 감동에서 노출되는 양심이 살아 있는 하나의 고백적 표현인 것이다.
kkiwon2002@hanmail.net

리더로 성장할 때, 꼭 잠재적 리더 찾아라!

(1면에서 계속)
첫째,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라.
잠재적인 리더를 발견하는 한 가지 방법은 소그룹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다. 여러 가지 책임들을 분배한 다음 누가 기회를 잡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임에 불참한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일을 당신의 멤버들에게 시켜보라. 누가 자진해 그 일을 하는지 보고, 실제로 누가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리더다.
둘째, 잠재적인 리더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마 9:38)고 하셨다. 매일 당신의 멤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비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보여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멘토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바울은 후임자가 없으면 사역이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딤후2:2).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의 습관 중 하나가 예비 리더들

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셋째, 당시에 의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찾음으로써 범위를 좁혀라.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 밑에서 훈련생이 될 준비가 돼있는 것은 아니다.
다. 잠재적인 예비 리더들을 찾을 때 세 가지 C를 적용한다.



(1)Compatibility(적합성):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막3:13).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서로 잘 맞고 서로 좋아하지 않으면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다. 당신이 함께 있고 싶

은 사람도, 또 당신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선택한다.
(2)Character(성품):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품을 근거로 리더들을 선택하라고 당부했다(딤후 3:1-9).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성품의 필수요소인 F.A.I.T.H.를 가진 사람들을 찾는다.
△Faithful(충성된 사람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잠재적 리더들 안에서 찾았다고 했던 첫 번째

스스로 도우려 하고, 좀 더 깊이 관여하려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
△Teachable(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이미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당신이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배움에 갈급한 사람들을 찾아 당신의 삶을 그들에게 쏟아 붓는다.
△Honest, Open, and Transparent(정직하고,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들). 진심으로 마음을 열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다 보면 점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죄와 결점, 실패와 실수 등을 감추려 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3)Competency(역량):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다(출18:21).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없다. 바른 인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린 자에게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일하라고 하셨다. 그는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 헌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막5:19).

자질은 충성이었다(딤후2:2). 모임에 우선순위를 삼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충실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Available(당신과 만날 시간이 있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Initiative(솔선하는 사람들).

WFF는 2013년부터 매년 '현대판 노예'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펴낸다.

(2면에서 계속)
아프리카인 1000명 당 약 8명으로 약 900만 명이 노예 상태로 살아간다.
동 보고서는 '현대판 노예제'

를 유발하는 두 가지 핵심 요인으로 권력을 지명하기 위해 국민을 강제노역으로 내모는 억압적인 정권과 범죄·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지역분쟁을 꼽았다.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8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8년 8월 31일(금) 오후6시
- 3 입학 시험 : 2018년 9월 1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강 부흥회 : 2018년 9월 4일(화) - 9월 6일(목) 저녁 8시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납가주사랑교회)



어느 나라에 충성?

“한국 대사로 재직 중에 만약 한국과 미국 간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어느 쪽 편을 들겠습니까?” 미 연방정부 인사 담당자가 주한 미 대사 후보였던 신호범 전 워싱턴 주 상원의원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신호범 의원은 4살 때 고아가 되어 미군에 의해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영

어를 못해 매일 3시간밖에 못하면서 공부를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마침내 미국 대학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워싱턴 주 상원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신호범 의원은 잠시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

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만 잘하면 대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도 알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하려면 우선 대사의 직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시아피코 대사는 ‘자국을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는 그가 대표하는 나라의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대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지도자로부터 임명을 받습니다. 임명과 동시에 그는 자국과 파견된 나라에서 대사 직책에 걸맞은 존경과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므로 대사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가 파견된 나라의 법도 잘 준수해야 하고, 자국에 수치나 불명예를 가져다주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대사는 정해진 임기가 끝난 후에 귀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유사시에 본국으로부터 귀국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귀국 길에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대사’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천국 시민권자가 된 우리들은 이 세상으로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호감을 갖게 하고, 우리처럼 천국 시민권자가 되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언행과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와 대사답게 살아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도 불법체류자가 있을까요? 오직 천국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

기에 불법체류자가 없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들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사단과 그의 왕국에 종노릇 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잠시 고민하던 신호범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부모가 싸우면 어느 쪽 편을 들겠습니까? 미국은 나를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 나라이고 한국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같은 나라입니다.” 덧붙여서 그는 미국과 한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읽

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우리들에게는 두 나라(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중에 어떤 나라를 선택할지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하기를 소원하시지요? 성령의 새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시지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잘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푸/른/초/장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연세아카데미원장)



흑인들이 오랫동안 불러온 흑인 영가 중에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의 애창곡이 된 노래가 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 노래 가사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놀물 글썽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게 된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 하리라, 비록 억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Freedom of Worship) 3. 결핍(가난)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 4.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이다. 세르반테스는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했다.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소극적 자유 곧 외부로부터의 속박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킨다. 또한 자유는 적극적 자유인데 자신이

에서 자유롭지를 못한 처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자유케 하셨다. 형벌에서 자유케 하셨다.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다.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불행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죽어야 할 여인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독교인 여자를 싫어하고, 여자들은 B형 남자, 고리타분한 남자, 기독교인 남자를 싫어하고 기피한다는 것이다. 남여 공히 재혼 상대로 기독교인들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설문이다. 그리고 반성케 하는 조사이다. 왜냐하면 나를 포함하여 우리 교인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과 삶의 자세가 외부인들이 보기엔 아니, 우리 스스로가 보기엔 참 제자가 됨을 보여 주지 못해서 일 것이다.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2:52).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인자와 진리를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요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참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 8:36). **범고래 이야기** 요즘 캐나다 밴쿠버 앞 바다의 범고래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미 범고래가 새끼를 낳았는데

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눅4:18). 주님은 여러 가지로 놀려 억압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9). **은혜의 간증** 끝으로 나의 작지만 절실한 은혜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려 한다.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것도 LA 코리아타운 한 가운데 자리 잡은 교회 넓은 사무실에 머무르면 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가끔 비 오는 날이 되면 나의 어린 시절 험겨웠던 아픈 추억을 더듬게 된다. 왜냐하면 8.15해방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은 일본에 계시다가 귀국하셨다. 내 어머니는 가난한 가게를 도우시려고 시장에서 잡화점을 하셨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백화점을 하셨다고 유머스럽게 얘기하곤 한다. 나는 학교를 오가며 어머니 가게를 도운 적이 있다.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 되어 어머니의 잡화점 가게에서 장사를 도울 때 여름 소낙비가 쏟아지면 시장에 쳐둔 텐트 위에 비닐을 덮고 비를 막느라 애쓰시는 어머니를 보았다. 겨울이면 찬 겨울바람을 막으려고 휘장을 두르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한다. 어머니를 도와 비를 막고 바람을 막던 그 아픈 때를 기억한다. 그때 어린 나는 그 소낙비 그 찬 바람에서 벗어나 아늑한 빌딩 점포에서 우리 어머니가 사업하기를 많이 바라보고 시장 장터가 아닌 빌딩에 자리 잡은 삼점 주인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지금도 비가 오고 찬바람이 불 때는 내 어머니와 함께 하던 그 시절의 비와 바람을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어머니의 가게를 축복해 주셔서 크게 번창하여 결국은 빌딩상가 점포를 갖고 사업을 하게하셨고 한 때는 저희 지방에서 사업에 성공한 경우가 되어 세금을 아주 많이 내는 가난에서의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 지금 나는 내 주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어 이곳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 어머니와 함께 하였던 그 소년시절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지금은 비가 와도 우리와 상관없다. 차가운 겨울이 와도 우리와 상관없다. 내 주님은 그 어린 시절의 소낙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춥던 시골 장터의 차터던 겨울바람에서 자유케 해주셨다. 비록 거창한 이론이나 경험이나 신학적 설교학적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이 지면을 통해 내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님은 ‘자유주시는 내 주님’이라고 널리 알려 자랑하여 드리기를 바란다.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요한복음 8:31-36)

인간의 삶의 높은 가치는 자유(Freedom)이다.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는 리치먼드 성요한교회에서 연설을 할 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Death)고 외쳤다. 그가 외친 이 외침의 말은 자유를 질질해 하는 인간의 실존을 웅변으로 표현하고 있다. 것처럼 자유는 인간사회에 중요하고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절대적 가치가 된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자유론”에서 “문명사회에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적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자유의 가치를 뛰어 넘을 가치는 없는 것이다. 그는 이 자유를 설명할 때에 “그 무엇에 방해 받거나 거리가 있어 감정이 제약된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이라 했다. 세네카는 “자유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기회에서도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자유는 감정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이지만 영적인 문제이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된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1년 1월 6일 연두교사에서 선포한 소위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은 자유의 내용을 잘 정리한 것으로 공감이 되어 루스벨트협회는 조직이 만들어져 자유를 위해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자유메달’을 수여하는 데, 노벨상 못지않은 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시 루스벨트 섬에 “Franklin D Roosevelt Four Freedom Park”가 만들어져 있다. 이는 그가 주장한 자유의 내용의 공감성을 증거하는 현상이다. 그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1. 언론과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2. 신앙의 자유

라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무엇에 대한 자유’라는 것이다. **참 자유주시는 예수님** 자유 주시는 내 주님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주시는 주님 이시다. 죄와 저주와 형벌과 불행과 사탄의 권세와 가난과 여러 가지 억압 감정, 다양한 억압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주님 이시다. 죄와 저주와 고난과 사탄의 권세와 다양한 억압 감정과 다양한 부자유한 상황에 대해 자유 할 수 있는 말씀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이시다. **요한복음 8장은 참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인인 예수님은 지난밤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쉬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안식일에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그때 분노한 남자들이 손에 돌맹이를 들고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 다. 남자들은 정죄의식과 분노와 살인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 부자유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형벌감정에 노예가 된 남자들에게 끌려온 한 여인은 자유인 아닌 속박 된 비 자유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자유를 상실한 처지가 되었다. 울법에서 자유하지를 못하고 처형에서 자유하지를 못하고 죽음에서 자유하지를 못하고 불행에서 자유하지를 못하고 한 여인의 행복권을 박탈당하고 여인의 최악의 불행

있었다. 예수님은 주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참 자유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임을 자증 하였고 참 자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 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유롭게 되는 길을 가르치셨다. 주님은 우리가 참 제자가 됨으로 자유롭게 됨을 가르치셨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 내 말에 거한다는 말씀은 말씀에 불들리고 말씀에 영향력 아래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곧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다는 것이다. 유대인 남자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행한다. 이를 ‘바르 미쯔바’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계약의 아들’로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뜻이다. 예수님은 감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말씀에 거함으로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자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혼/재혼 상대 구하기** 결혼 재혼 상대에 대한 연구 보고서 접한 적이 있다. 남자가 기피하는 여자에 대하여, 정리된 보고서인데 여러 가지 중에 각기 세 가지씩을 말해보자면 남자들은 0형 여자, 와일드한 여자, 그리고 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잠3:3-4).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참 자유를 누리게 가르치셨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다. 진리는 예수님 이시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시다. 진리는 예수님의 인품 이시다. 진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다.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진리를 모르면 자유롭지를 못하게 된다. 지두 크리슈나 무르타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란 글을 통해서 그릇된 앞에서의 자유를 강조한다. 한문에 ‘식자 지우환’이란 말이 있듯이 그릇된 지식은 사람을 속박한다. 사람을 부자유 하게 한다. 어리석은 것을 아는 것 곧 진리 아닌 그릇된 지식을 벗어나 참 지식 참 진리를 얻어야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사울이 주님 만나기 전의 신앙적 신학적 지식은 그릇된 지식이었다. 그릇된 그의 신 지식에서 탈출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는 참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케 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참 자유를 누리게 됨을 가르치신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셨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 참 자유가 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 참 자유함이 있다. 성령은 우리

새끼 죽자 어미 범고래가 죽은 새끼 고래를 버리지 않고 고래의 코에 걸어서 16일 이상 계속 방황하고 있다는 사진의 보도이다. 새끼 고래를 버리지 못하고 죽은 새끼 고래를 코에 얹어 아파 방황하는 그 고래를 보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아파하는 것은 그 고래의 죽은 새끼에 속박된 그 마음을 우리 인간들이 갖고 살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소중한 그것들, 자녀, 사랑, 명예, 물질 등에 포로 되고 속박 되고 억눌려 자유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고래에게서 보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고래처럼 마음에 힘과 자유가 없는 인생들에게 힘과 자유의 법을 가르치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쉬을 얻으리라”(마 11:28-29). 주님은 우리를 근심과 그 많은 염려에서 자유케 하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14:1). 주님은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자유케 하신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롬6:18). 주님은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막5:34). 주님은 우리를 가난함에서 건져 가난에서 자유케 하신다. “주의성

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눅4:18). 주님은 여러 가지로 놀려 억압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9). **은혜의 간증** 끝으로 나의 작지만 절실한 은혜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려 한다.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것도 LA 코리아타운 한 가운데 자리 잡은 교회 넓은 사무실에 머무르면 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가끔 비 오는 날이 되면 나의 어린 시절 험겨웠던 아픈 추억을 더듬게 된다. 왜냐하면 8.15해방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은 일본에 계시다가 귀국하셨다. 내 어머니는 가난한 가게를 도우시려고 시장에서 잡화점을 하셨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백화점을 하셨다고 유머스럽게 얘기하곤 한다. 나는 학교를 오가며 어머니 가게를 도운 적이 있다.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 되어 어머니의 잡화점 가게에서 장사를 도울 때 여름 소낙비가 쏟아지면 시장에 쳐둔 텐트 위에 비닐을 덮고 비를 막느라 애쓰시는 어머니를 보았다. 겨울이면 찬 겨울바람을 막으려고 휘장을 두르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한다. 어머니를 도와 비를 막고 바람을 막던 그 아픈 때를 기억한다. 그때 어린 나는 그 소낙비 그 찬 바람에서 벗어나 아늑한 빌딩 점포에서 우리 어머니가 사업하기를 많이 바라보고 시장 장터가 아닌 빌딩에 자리 잡은 삼점 주인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지금도 비가 오고 찬바람이 불 때는 내 어머니와 함께 하던 그 시절의 비와 바람을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어머니의 가게를 축복해 주셔서 크게 번창하여 결국은 빌딩상가 점포를 갖고 사업을 하게하셨고 한 때는 저희 지방에서 사업에 성공한 경우가 되어 세금을 아주 많이 내는 가난에서의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 지금 나는 내 주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어 이곳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 어머니와 함께 하였던 그 소년시절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지금은 비가 와도 우리와 상관없다. 차가운 겨울이 와도 우리와 상관없다. 내 주님은 그 어린 시절의 소낙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춥던 시골 장터의 차터던 겨울바람에서 자유케 해주셨다. 비록 거창한 이론이나 경험이나 신학적 설교학적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이 지면을 통해 내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님은 ‘자유주시는 내 주님’이라고 널리 알려 자랑하여 드리기를 바란다.

밖을 나서면 더움을 넘어서는 파
가울 정도로 강한 햇살이 비추는 한
여름 3주간을 한국에서 사역하였다.
거기에 바람만 조금 불면 마치 화염
방사기를 들이대는 것처럼 뜨거운
여름이었다.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를 안과 밖의 온도차가
일정함과 그렇지 못함에 있다하였
는데, 빌딩 실내에서의 온도와 바깥
에서의 온도차는 이루 말할 수 없었
다.

이제 이곳 미국에서의 삶의 터전
인 중남부 지역에도 여름은 한껏 비
켜가는 것 같다. 실제 더운 것은 별
차이가 없겠으나, 20년을 살았다는
영혼의 장소성 탓에 영육이 느끼는
안정감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의 사역은 주로 경부선
을 중심으로 분주히 오가는 길이었

하나 등 그런 이름들이었다. 엄청 세련
된 세상임을 이름에서도 느끼게 된
다. 게다가 기계를 이용해 표를 구매
하면 혜택을 주게 되니, 기차역 창구
의 분주함도 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
니 승객들의 물결 흐름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그렇게 전화기로 수신한 표를 보
고서 각자 알아서 타고 나면, 기차안
의 승무원도 또한 알아서 빈자리를
찾아 검사를 한다. 기차 안에서는 무
료 와이파이도 제공된다. 예전처럼
홍익회라는 이름으로 기차 안에서
오징어포나 달걀을 팔지 않는다. 생
각컨데 그걸 뜯어 먹으며 앉아 있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잠시 멈추어 서는 시
간에, 다음 승객들이 탈 때까지 마지
막 한 짓가락까지 잔뜩 눈치 보며

도 예전보다 더 바쁘고 피곤해진 것
이다.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에서 한국
으로 들어갈 때, 거의 잠을 자지 않
고 일을 했다. 미국에서 못다 한 일
과 한국에서의 시간을 줄이고자 일
을 미리 앞당겨 하는 것이었다. 그것
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제선 비행기
안에 인터넷이 연결되기 때문이었
다. 게다가 전원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서 충전이 자유로웠다. 예전처
럼 면도기 하나를 사용하려해도 화
장실을 가야만 연결되던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

비행기 여행 중에 일을 하려고 일
부러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가던 시
대는 지나간 것이다. 전원이 공급되
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예전에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잠자

2곳으로 맞추어서, 핸드폰은 한국
시간을 손목에는 미국시간을 저장
해서 각기 두 곳의 삶을 살려고 하
니, 에너지는 2배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예전보다
더 행복해야 할 텐데, 마음과 육체는
더 갈급해 하는 것을 본다. 세상문화
의 발달이 삶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
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작은 시골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빨라진 차를 타고서 급
격히 쇠락해가는 것을 많이 목격했
다. 더 이상 아름다운 내 고향 정든
땅이 아니었다.

홍수 날에 마실 물이 없다고, 바쁘
고 편리해진 세상에서 쉬 찾을 수
없는 행복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
할까?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 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할렐루야" 용어사용에 있어서 (가)교회 공문서나 행정
서식, 안내장 등의 머리에 인사말로 "할렐루야" (나)설교자 목
회자 등 초청 인사를 환영시 인사말로 "할렐루야" (다)교인끼
리 환영할 때 인사말로 "할렐루야"를 끼워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한 용어인지요? 그리고 성찬예식에 있어서 (장로교단 성찬예
식 있어서)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도 성찬예식에서 "떡과 잔"
에 참여해도 무관한지요?
-오지카운티에서 JOHN PARK 드림

A: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가 '할렐루야'라는 단어
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할렐루야란 단어의 뜻은 '여
호와와 찬송하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주로 시편에서 신약에
서는 계시록 19장에만 나옵니다. 시편의 할렐루야 시는 시106편
에 제일 먼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나오는데 시편111, 112, 113,
135, 146, 147, 148, 149, 150편에 그래서 10번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 146-150편은 시작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
루야로 끝맺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진정성 담은 '할렐루야' 나쁘지 않아...
성찬은 조직교회 질서상 세례자에게만 허용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을 보면 모든 장소,
모든 방법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
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하루를 마치는
것이 옳으며 예배 때뿐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행사에 할렐루
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이 성경적인 줄입니다. 왜
냐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와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교회공
문서나 안내장에 할렐루야라는 인사말을 진정 신앙적인 의미에
서 쓰는 것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목사가 성도들
과 인사할 때 할렐루야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
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주와 주
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모든 장소 모든
영역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
은 교인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교단은 모르나
제가 속한 장로교 교단은 예배모범 11장 4를 보면 "주의 정하신
대로 이 성례는 성도의 연합함을 나타내이니 목사는 이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참 도리를 믿고 따르는 무리와 또 무릇한 입교인
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할 것이요 세례인이 아니더라도 이 예
식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청함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
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묵상하고 기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를 믿
어 중생한 성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교회에서는
누가 중생한 교인인지 모르기에 함부로 성찬을 주면 성찬의 의미
를 남발할 수 있기에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공적으로 고백하여
세례 받은 교회의 멤버십 받은 신자에게만 허락을 하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되나 조직
교회에서는 질서상 세례 받아 공적으로 신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성찬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빠른 세상, 바쁜 사람들

- 삶의 방향과 행복

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몇 번을
반복하며 지났다. 짧은 시간동안 그
렇게 여러 번 오갈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촘촘한 철도망과 도로의 엄
청한 편리함 때문이었다. 주로 머문
곳이 고향 대구였는데, 차를 가지고
가서 역 주차장에 세워두고 기차를
이용하면, 서울은 두시간 내로 부산
은 45분 만에 도착하게 된다. 게다
가 기차표는 차를 몰고 가면서 정차
중에 핸드폰으로 표를 예매할 수 있
었다. 그야말로 아침은 집에서, 점심
은 서울에서, 저녁은 부산에서 먹는
생활의 발전과 진보를 분명하게 체
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편리함에 놀라면서도, 기
차와 관련된 추억의 그림들은 점차
잊혀지는 아쉬움을 보게 되었다. 예
전처럼 기차를 타는 곳에는 더 이상
역무원이 긴 줄에 한 사람씩 표를
짜여 들어가도록 하지 않는다. 작은
창구 구멍으로 표를 살려고 잔뜩 허
리를 구부린 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말하던 것도 없어지고, 이젠 테이
블에 앉아서 대화하듯 편리하게 표
를 구입한다. 일을 보는 사무원들의
이름도 예쁘다. 예전의 영숙이 명숙
이 하던 이름들이 이제는 한아름 강

우동 한그릇 해치우던 그 시절은 완
전히 과거가 되었다. 신대원 3년을
매주 기차통학을 하고 3년 동안
유일하게 부르던 고향역이 이제는
백화점과 연계된 복합환승센터가
되었다. 기차역에 오면 소풍을 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하도록 편의를 제공
한다. 그곳에 주차하고 통과하면 고
속버스와 짐 없는 기차 스캐폴이 서
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편리한 세
상임을 직감하게 한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해본다. 왜 이
렇게 빠르고 분주해졌을까? 오직 한
가지 조금 더 편리한 것을 찾고 찾
음의 결과일 것이다. 과연 그런 느낌
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는 편리함과 편안함이 같은 말은 아
닌 것을 느끼게 된다.

궁극적인 편안함을 위해 사람들
이 편의의 정점을 지향하며 개발한
것일 터인데, 이런 빠름과 편리함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함으로,
실제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훨씬
더 피곤한 인생을 살게 하더라는
것이다. 최근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
이 회자하는 말 두 가지가 있다면, '피
곤하다'는 것과 '바쁘다'는 것이
다.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세상임에

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계속 전원이
공급되니 일도 계속해야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잠을 자거나 하지 않아
도 되고, 하루의 연장선이 훨씬 더
길어진 것이다. 비록 열한시간을 비
행기를 타지만, 일상에서의 열한 시
간을 생각하고 일하다 보면, 태평양
을 지나는 비행기 안에서까지 일상의
삶을 그대로 옮겨 놓게 된 다. 그
렇게 따라 가다보니 어느 순간 쉽
없이 일만하다가 한국에 도착을 하
더라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일상도 마찬가지였다.
카톡시대가 열림으로 실시간으로
태평양 건너편의 상황을 인식하며
전혀 다른 두 곳에서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다. 편리하여 지고자
개발하고 진보하였는데, 사람의 마
음의 욕심이 결합되어 인생은 더 피
곤하고 끈고하게 된 것이다.

예전처럼 서울을 다녀오기에 힘
이 들면 거기에 맞추어 일을 했을
텐데, 배터리가 소용되는 만큼만 일
을 계획했을 텐데, 전기가 없을 때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았을 텐
데, 이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빨라진
세상가운데서 훨씬 더 피곤하고 지
친 삶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시계

만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
가지 아니겠는가?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과 수고를 거듭하는데, 실제는
너무 무리한 탓에 건강을 잃어버리
고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지 돌
아볼 수가 없고, 게다가 정말 피곤해
서 주일성수를 할 수 없다면, 정말
분명히 다시 한번 더 우선순위를 점
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한 애쓰이고 노력인가?
과연 당신은 주님안에서 행복한 인
생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가? 편리한
만큼 바쁘고, 바쁜 만큼 쉬지 못하고
결국 불평과 원망의 인생을 살고 있
다면 최악의 인생여정을 지난다고
할 것이다. 이민자들 가운데 쉽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종말시대에는 사람들이 걸음을
빨리하며 급히 왕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지 않
으면서,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갈 때,
인생은 편리한 만큼 영원히 평안함
과 만족함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9면으로 계속)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음악대학 및 대학원
(BM,MM,DMA 학위과정)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 실기 일대일 교육, 100% 온라인 이론 강의!

<p style="text-align: center;">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p> <p style="text-align: center;">CAMS 시스템을 통하여 100% 온라인 음악 강의를 실시되고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수진들의 최고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최고의 교수진</p> <p style="text-align: center;">유럽과 미국에서 최고의 기량으로 각 음악실기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교수들로부터 일대일 실기 실습과정이 on and off line 에서 이뤄지고 있다</p>
---	---

세계 음악지도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Missouri주 Wentzville에 32년의 전통을 지닌 Midwest University의 교수들은 유럽 및 미국의 유수 음대대학원 음악박사 학위자들로 각 영역에서 최고의 기량과 리더십으로 겸비된 연주자들로써, 현재 지도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엔 한국 예술종합학교, 이탈리아의 Giovanni Paisiello Conservatory, 독일의 Hochschule für Musik Karlsruhe, 미국의 Manhattan School of Music, Johns Hopkins Peabody Conservatory, The Juilliard Music School 출신자가 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학사 Bachelor of Music 129 학점
- 석사 Master of Music 48 학점
- 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60 학점
- 전공 : 피아노, 음악코칭, 성악, 지휘, 작곡, 현악, 관악기, 음악융합예술

모집기간

2018년 7월 13일까지

지원자격

- 학부 :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자
- 대학원 : 음악대학졸업 (Musical Arts Convergence 전공은 음악교육대학 졸업자도 가능) 혹은 동등 학력자
- 박사 :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한 자

학위 취득방법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 영어, 한국어, 중국어 언어로 학점 취득 가능

Midwest 음악동문

구두회박사 (前 숙대 음대 학장), 황병덕박사 (前 연대 음대 학장), 박재호박사 (前 한양대 교수), 윤학원박사 (前 중앙음대 학장), 전희준박사 (前 찬송가총회대표) 등 일반 음대교수 수십명이 활동중이다.

입학, 편입, 유학 등 자세한 문의는 미국본교 (636)327-4645 usa@midwest.edu / 입학상담 Dr. Dae Kim (dgkim@midwest.edu) / 등록상담 Mr. Jay Ham (muadm@daum.net)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4645 / Fax : (636)327-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4750 / Fax : (571)730-4751
E-mail : wdc@midwest.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가니스탄의 피로즈코히(FIROZKOH)



피로즈코히족은 아프가니스탄의 중부 산악 지대에 사는 규모가 작은 종족이다. 피로즈코히족은 좀 더 크게는 차르 아이마크(Char Aimaq) 종족 집단에 속한다. 차르 아이마크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북부 지방에 흩어져 있다. 피로즈코히라는 이름은 "피루즈쿠(firuzkuh)"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피루즈쿠는 "청록색의 산(mountain of turquoise)"이라는 뜻이다. 피로즈코히 사람들은 파

르시(Farsi)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어에 속하는 언어와 투르크(Aimaq)어의 어휘를 함께 사용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차르 아이마크족은 이동하게 되었고 쪼개져서 흩어지고 다른 다양한 정부들과 연합하게 됐다. 피로즈코히족은 험한 산악 지대를 따라 정착 없이 거니는 준유목 종족이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세계적으로 무역 길로 알려진 곳이다. 다양한 종족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차르 아이마크족은 혼합된 문화유산을 형성하게 됐다. 이들 대부분은 몽골인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글스칸 병사의 후손임을 강조한다. 차르 아이마크족은 소련의 아

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해 활동적으로 싸웠으며, 이후 계속된 내전에도 참여했다.

삶의 모습

피로즈코히족이 한때는 완벽하게 유목민족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정한 계절 동안에만 이동하는 준유목민이 됐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있었던 가뭄과 침식으로 인해, 많은 피로즈코히 사람들이 농부가 됐다. 이들은 밀, 포도, 쌀, 보리, 귀리, 멜론, 야채 등을 키운다. 농사일에 구식의 괭이와 나무로 만든 쟁기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즈코히 문화에서는 농사가 여전히 주된 활동이 아닌 부차적인 활동으로 인식된다. 한 사람의 재산은 그가 가진 가축의 규모로 결정된다.

피로즈코히족은 고기, 어유, 지방, 치즈 등을 공급하는데 자신들의 가축에 의존한다. 텐트를 만드

는 데도 역시 동물의 가죽이 사용된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조차도 봄과 여름에는 자신들의 텐트로 나가서 생활한다. 아이마크 부족들의 일부는 도시에서 생활하며 농사짓는 동안에 벽돌로 지은 오두막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피로즈코히족은 주로 원형이며, 지붕이 둥글고, 이동 가능한 "천막집(yurt)"에서 생활한다.

피로즈코히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부계사회다. 사회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한 단위다. 한 남성, 그의 부모, 그의 아내 혹은 아내들, 그의 자녀들이 한 가족을 이룬다. 어린 소녀가 결혼하게 되면 그녀는 남편의 직계가족의 일부로 여겨진다. 피로즈코히족의 종족적 일체감은 가족과 씨족에 기초한다.

피로즈코히 여성들은 가족을 지키는 것을 돕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들의 기본적인 일은 카페트를 짜는 일이다. 각 부족 혹은 마을마다 자기 자신들만의 독특한 패턴이 있다. 이 패턴은 어머니에게서

달로 전수된다. 여성들은 좋은 모직 카페트를 만들기 위해 휴대용 직조기계를 사용한다. 음식을 마련할 재원은 약한 편이며, 카페트를 만들어 번 돈이 피로즈코히 사람들이 생존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가족, 현금과 함께 카페트 역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된다.

신앙

사실상 피로즈코히족은 수니파(정통파) 이슬람교를 믿는 하나피테(Hanafite) 이슬람교도들이다. 이들은 이슬람교에서 하나피(Hanafi)가 가장 순결하다고 믿는다. 이들의 이슬람에 대한 강한 믿음은 종종 기독교를 "순수성을 잃은 일신교(corrupted monotheism)"라고 비웃게 한다. 그러나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코란에도 있는 구약의 이야기에 익숙하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영적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자유의 전사들"에게 군수품을 제공했다. 후에 아프가니스탄이 정치적 내전에 휘말리면서 인권은 유린됐고 이러한 군수품 제공은 끊겼다. 전 아프가니스탄이 소련과의 전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많은 마을이 파괴되고 음식을 찾기 어렵게 됐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안전한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우며, 전쟁은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피로즈코히족이 거처를 이동하고 넓게 퍼져 있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현재 한 선교단체가 이 피로즈코히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그러나 피로즈코히족 가운데 신자로 알려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환자와 기도했다...해고 간호사 2년 만에 복직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성경을 건네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영국의 기독교인 간호사가 2년 만에 복직 판결을 받았다.



14일 영국의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에 따르면 영국 간호사협회(Nursing and Midwifery Council·NMC)는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간호사 사라 쿠테(Sarah Kuteh)의 업무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녀의 간호사 복직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다트포드의 대런트 벨리 병원(Darent Valley Hospital)에서 근무하던 사라는 2016년 8월 해고됐다. 한 여성 환자가 간호사 사라에게서 성경책을 받은 뒤 문제를 제기했다. 그 환자는 "성경을 받고 싶지 않았으며 간호사가 '기도해도 되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사라가 업무 중 종교에 대해 토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15년 간호사 경력을 지닌 사라는 기독교 신앙을 환자들에게 강요할 의도는 없었으며 다만 기독교적 신앙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환자와 함께 종교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는지 설명했다"면서 "내가 얻은 기쁨과 평안을 통해 환자를 안정시키고 그들의 쾌유를 도울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사라는 그동안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크리스천컨선은 "NMC의 판정에 따라 사라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병원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안도했다. 사라는 1주일에 평균 30~40명의 환자를 돌보게 된다.

사라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생각지도 못한 해고로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그 충격만큼 제가 다시 사랑하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어 더 기쁘다"고 밝혔다. 사라는 상사는 "진절하고 정직하며 불임성 많은 간호사가 다시 돌아온다니 기쁘다"고 반겼다.

기독교 개종 9살 인도 소녀의 끔찍한 죽음

기독교로 개종한 아홉 살 소녀가 집단 아홉 뒤 피살되는 등 인도에서 크리스천과 소수 종교인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의회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크리스천포스트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의회 서한을 국제기독교단체(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ICC)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ICC 마티아스 페틀라 공보국장은 "미 의회가 모디 총리에게 보낸 초당적 서한에는 인도에서 크리스천과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이번 서한으로 인도 정부가 이 같은 종교 박해 근절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디 총리는 소수 종교인에 대한 공격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하며 아울러 이런 범죄 가해자들에게 대한 실질적인 법적행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로스 하원의원과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의 대표 명의로 작성된 서한에는 소수 종교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에게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인도에서 크리스천에 대한 공격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수십 차례 공격 사례가 보고됐다. 주로 시골의 극단적인 힌두교인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크리스천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에는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아홉 살 소녀 안잘리 마시(Anjali Masih)가 인도 북서부 펀자브주 구르다스푸르에서 집단 성폭행 뒤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현지 크리스천들은 최근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힌두교나 시크교도 사이에 반기독교 정서가 횡행하고 있다고 월드와치모니터(World Watch Monitor)에 알렸다.

인도에서의 반기독교 정서는 2014년 힌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하면서 광배해지고 있다.

2016년에는 펀자브주 루디아나에서 목회자가 살해됐고 지난 7월에는 자르칸드 주 쿤티 지역의 크리스천 6명이 힌두교로 강제개종 당했다. 같은 달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타밀나두 주 남부의 한 마을을 침입해 교회 안에 있던 목회자와 사모, 그리고 3명의 크리스천들을 공격했다. 이들은 사모의 옷을 벗기는 만행을 벌였다. 또 같은 날 차티스가르 주 인근에 위치한 라젠드라 나가르의 한 교회에서는 한 남성이 예배 중이던 남성과 여성, 아이들을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슬람교도(14%)와 크리스천(3%)가 뒤를 잇는 것으로 추산된다.

도 넘은 중국의 교회탄압...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이 도를 넘어 있다. 가정교회에 공안이나 집단 신고 등을 해산시키고 개종을 강요하는가 하면 교회를 폭파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수도 베이징의 최대 가정교회도 정부의 감시와 탄압에 견디지 못해 폐쇄 위기에 몰렸다.



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가장 큰 가정교회인 시온교회는 지난 4월 교회 내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려는 시 당국의 요구를 받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화재 및 사고 위험 방지 차원이라고 했지만 교회 측은 감시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중국 공안은 시온교회를 '불법 사이버'로 규정짓고 수백명의 신도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교회를 떠나라고 위협했다. 이를 거부한 신도들 중 일부는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임차한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공안이 회사 오너와 건물주를 협박한 것이다. 교회 측은 "정부의 위협 때문에 많은 신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 수가 100명 정도인 허난성 정저우의 한 가정 교회에는 지난 1월 경찰과 공무원 60여명이 예고 없이 들어닥쳐 전기톱으로 교회를 부수고 성경과 컴퓨터를 압수했다. 이어 14세 소녀를 포함한 신도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10시간 이상 구금했다. 또 지난 1월 초 중국 산시성 린핑시의 가정교회도 진명탕은 아예 시 당국에 의해 폭파돼 철거됐다. 현지 경찰은 교회를 에워싸고 신도들의 접근을 막은 뒤 교회 주변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했다.

개신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후 심해졌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울 들어 종교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중국 베이징 소재 48개 가정교회는 최근 연명으로 정부의 교회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가정교회는 성명에서 "베이징과 상하이, 쓰촨, 광둥, 허난 등의 가정 교회들이 울 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탄압을 받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르완다, 교회 폐쇄 이어 목사 자격까지 규제

안전문제를 이유로 교회를 폐쇄해 온 르완다 정부가 교회의 재무, 목사 자격까지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서 현지 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르완다 정부는 지난 3월 한 교회의 지붕에 벼락이 떨어져 예배를 드리던 성도 16명이 사망하자 보건·안전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8000개 교회를 폐쇄했다.



8일 미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르완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의회가 통과시킨 종교시설에 대한 새 법률안을 교회가 종속할 때까지 예배당 폐쇄를 지속하기로 했다. 법률안에는 정부가 공인된 학교에서 신학교육 학위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금식기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공식 교회와 기도원 등의 후원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은행계좌로 명시해야 하는 규정까지 포함돼 있다.

르완다 정부가 교회 폐쇄를 넘어 교회 살림과 목회자 자격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려는 이유는 일부 목회자의 부패행위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나스테세 샤야카 종교관리위원회장은 "위생적인 예배당을 늘리기 위해 폐쇄 조치를 시행한 것은 맞지만 종교 지도자로 가장한 부도덕한 사람들의 행동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 교계는 법안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조나스 마타바로 목사는 "성도들의 육체적 안전도 중요하지만 신앙적 안전도 중요하다"면서 "양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공인된 신학 학위가 필요하다"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수도 키갈리 서부에서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 목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신학 학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척박한 땅에서 정부의 규제안을 모두 만족하는 교회를 세우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근본 원인은 교육과 몰자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르완다 루터교 에발리스트 무가보 주교는 "지방 목회자들은 성경학교 수료증 정도만 갖고 있는 수준"이라며 "훈련받은 목회자가 세우지기 위해서라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르완다 정부 내 세속주의 확산으로 교회가 차별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르완다는 가톨릭(49.5%) 개신교(27%) 기타 기독교(16.5%) 등 인구 93%가 범기독교에 속해 있다.

"美 6-8개월 내 핵탄두 70% 폐기 제안... 北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6-8개월 이내 핵탄두의 60-70% 폐기'를 골자로 하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수차례 거부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vox(Vox)가 8일 보도했다. 같은 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을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를 압박하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중전 선언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등 양국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vox는 2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측이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는 북한이 6-8개월 내에 핵탄두의 60-70%를 이양하고, 미국이나 제3국이 이를 확보해 제거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원하는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북한이 시간표를 지키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 테러지원금 지정 해제 외에 어떤 보상을 제공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달여간 수차례 이 같은 비핵화 청사진을 내밀었지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매번 거절했다고 vox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같은 요구를 반복하자 북측은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이 3차 평양 방문에서 1, 2차 방문과 다르게 김영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이나, 고위급 회담 직

후 북한이 미국에 대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만 했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헤일리 대사는 이날 콜롬비아 방문 중 "북한이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가까이 기다리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며 신속한 비핵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같은 날 노동신문은 '중전선언 발표가 선차적 공경'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무슨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는 순차가 있는 법"이라며 "중전선언 발표로 조미(북미) 사이에 군사적 대치 상태가 끝장나면 신뢰 조성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되게 될 것"이라며 중전선언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

미 공화당, 오하이오 보궐선거 신승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의 '시금석'인 오하이오주 12지구 보궐선거에서 트로이 발더슨(55)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는 물론 2020년에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도 파란 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전통적인 보수 텃밭 오하이오주에서 접전 끝에 승리했다는 점에서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7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투표에서 발더슨 공화당 후보(주의회 상원의원은)는 10만1574표를 득표해 9만9820표를 얻은 대니 오코너 민주당 후보(주 카운티 판사)에게 1754표차로 승리했다. 득표율은 발더슨 50.2%, 오코너 49.3%로 격차가 1%포인트에도 못 미쳤다.

공화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별히 공을 들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토요일이었던 지난 4일 직접 이곳을 찾아 발더슨 후보를 위해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트위터에 "내가 발더슨 후보를 위해 오하이오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발더슨은 사전투표에서 64 대(對) 36으로 열세였다"면서 "토요일 내가 연설했 후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더슨 후보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도 했다.

fox뉴스는 선거 결과를 전하며 "공화당이 승리함으로써 11월 중간선거 전 판세를 뒤엎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인터넷매체인 약시오스는 "이번 선거는 후보들 간 경쟁이 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의 대결에 가까웠다"면서 "공화당은 이번 승리로 자신들의 기존 전략이 아직도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선거구가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었다는 점이다. 이 선거구에서는 1983년 이래 30년 넘게 출구 공화당 의원을 배출해왔다.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11%포인트 차로 압승한 바 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와 별개로 3개월 뒤인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원 전원을 다시 뽑게 된다. 중간선거에서 승리해야 향후 2년 간 하원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 두 후보는 중간선거에도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재 미국 하원은 공화당 236석, 민주당 193석으로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빼앗으려면 23석을 더 얻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의 유권자 동원 능력은 커지는 반면, 공화당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공화당 내부에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북·미 대화와 이란 핵협상 탈퇴, 무차별적 관세 부과 등 미국 정계에서 논란이 많은 각종 대외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기독교 신앙을 깊이 이해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전혀 자신과 상관없이 있었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피조의 세계로부터 초월한 영역에서 비교할 것이 없는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의 일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가까이 계시며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분을 체험적으로 만난 성도는, 지속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픈 열망을 지니게 된다.

중세 시대 수도원 운동이 지속되고 파급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속화가 되었다. 수도원을 설립할 때에 도시로부터 격리된 한적한 곳을 정하여 한적한 곳을 선택함으로써 세속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었다. 물론 세상을 등지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자체가 항상 그들이 지녔던 공동체 의식 속에 남아 있었다.

앞서 우리는 클루니 수도원의 개혁에 대해 살펴보았다. 엄격한 베네딕트 수련회의 규율을 중심으로 개혁 운동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수도사들의 수가 많아졌다. 그러나 수도원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추구하던 영적이며 신앙적인 개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모인 그들은 부가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개혁은 커녕 수도원 자체의 타락을 불러왔다.

하나님을 경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적으로 그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성경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요한일서 1장 6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과 사귄”(fellowship with him)을 말한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사귄다? “하나님과 사귄”이란 성경적인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보면 자칫 매우 불경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과연 그 경험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 자체를 지닌 것은 고무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중세 교회, 특히 중세 수도원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였을까? 특히 클루니 수도원의 타락으로 인하여 중세 수도원 운동이 중단될 수 있던 상황이었

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원 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을까?

시토 수도회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16)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수도원개혁운동 기수 버나드, 어거스틴 신학사상을 종교개혁시대로 연결 “십자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내면 삶에서 실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심”

클루니 수도회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1098년 프랑스 부르군드지방 시토(Citeaux)에서 새로운 수도회가 시작되었다. 이 수도회에 속한 수도사들은 하얀색 수도복을 입었기에 ‘백의 수도사’라는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이들은 클루니 수도회보다 더욱 엄격하게 베네딕트 수도회의 규율을 지키며, 침묵과 단식 그리고 단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다. 수도원장을 자체적으로 선출하게 함으로써 한 사람 지도자의 성향으로 인하여 수도원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일을 방지하려 하였다.

시토 수도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1113년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 버나드가 클루니 수도회를 떠나, 마음을 같이한 30여명의 동료와 함께 시토 수도원에 가입한 것이다. 그 후로 버나드는 시토 수도회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 역사가 중에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랑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였다.

버나드는 수도원 개혁 운동의 기수였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버나드는 정통 교리의 범주 안에서 이단성을 지닌 신비주의를 배격한 채 중세 수도원 운동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간의 감정에만 기초하려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내면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즉, 우리는 그로부터 이성주의나 감정주의를 배제한 채 실제적이며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

버나드는 “애정적 신비주의자”였다. 그는 하나님과의 연합, 사랑, 또는 체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버나드의 말을 요약해 보자.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인간은 특정한 단계를 걸쳐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으로 수직적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채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사랑은 버나드의 신비주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도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열망하는 중 그 극치를 하나님과의 합일로 본 것이다.

이 합일이란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인 일치라 아니다. 또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는 자신에 대한 회개와 겸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버나드로부터 영향을 받은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지내는 동안 여기서에서 설명된 신앙과 신부의 관계와 같은 깊은 영적 교제, 즉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진 이 시대의 교회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자기 사랑(self-love)”의 열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의 마음과 눈을 열어준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기게 한다. 결국 이 시대의 교회는 신앙의 기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covenantcho@yahoo.com

하나님을 아는 2가지-지적으로 아는 것(성경), 하나님과 사귄
하나님의 사랑(십자가 사랑)만이 인간의 마음과 눈을 열어줘

집중하려 하였다.

클루니 수도사들이 영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을 때에 과감하게 자체적 개혁의 목소리를 낸 인물이 있다. 클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 1090-1153)이다. 그는 수도사들이 부와 사치스런 삶을 탐하는 모습을 지적하였다.

버나드는 프랑스 동부와 독일 남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이던 시토 수도회를 마음에 두고, 그들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자신들도 검소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버나드의 직언은 그가 공동체 생활 ‘세상에 대한 경멸’에 잘 드러나 있다.

타락한 클루니 수도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시토 수도회는 유럽 사회를 향해 신앙과 문화를 보급하면서 널리 확장되어 갔다. 그들은 무엇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한 예로, 그들은 대중을 상대로 설교하거나 영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과

는 그를 ‘유럽의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가 시토 수도원에 가입하였을 때의 나이가 23살이었으나, 그의 천재성과 신앙심이 인정받아 25세에 수도원장이 되었다.

115년 그는 12명의 수도사들과 함께 클레르보(Clairvaux)에서 수도원을 시작하였다. 그 후로 그의 명성이 곧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시토 수도회를 “버나드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클루니와 시토 모두 베네딕트 수도회의 규율을 따랐던 공동체 생활을 인정하면서도, 버나드가 주도하던 부류의 신앙적 독특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클레르보의 버나드

버나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는 그 당시 대부분의 수도사들이 갈망하였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 지대한 관심을 지녔다. 그 뿐 아니라 어떤

다. 그들이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합일이다. 그들은 하나님은 그의 말씀인 성경 이외에도 직접 인간에게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매우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영혼의 중심부에 자리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범신론적 주장이다. 중세 시대에 나타난 ‘신비주의자’들의 기본적 사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버나드는 중세 시대의 ‘신비주의자’들과 분명히 다르다. 무엇보다 그는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의 신학 전통을 계승하였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 은혜 사상을 포함하여, 버나드는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을 종교개혁시대로 연결시키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 뿐 아니다. 버나드는 그가 제시한 ‘하나님과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초특가 온라인 판촉물 전문기업
핀촉상인 US
us.87sangin.com
FREE SHIPPING!
※현수막, 단체T셔츠 주문 환영

신속 정확 착한가격
기독교 서적 및 일반 서적
45% OFF+tax
한국서적
HANKOOK BOOKS

성경도 신앙(57) 교회와 국가



이운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2) 마틴 루터의 에라스투스주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처음에는 이 문제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주장했다. 그는 교회의 완전한 독립을 믿었다. 그의 교회관의 진수는 청교도들 중 일부 사람들의 관점과 같았다. 청교도들은 교회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했다. 그러나 루터가 나이가 들었을 때, 수많은 가공스런 난제들에 둘러싸이게 되는 불행한 일들을 겪었다.

루터가 살던 시대는 로마 카톨릭의 지배 아래 국가와 교회가 항상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대였다. 여러 세기에 걸쳐 로마 카톨릭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위를 얻는 오직 한 가지 방식은 시정을 주장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에라스투스주의자가 되어 왕들과 선거후들과 집정관들, 국가의 머리들에게 교회 생활 중 권세를 가하는 문제의 권한을 넘겨주었다. 그는 이단적인 관점 때문에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의 결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루터교회는 보편적으로 에라스투스파가 되었다. 편파적이거나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국가 교회가 그것이다. 그 교회의 입장은 영국 국교회인 성공의 입장과 매우 비슷하였다.

37조는 이렇게 진술한다: “여왕 폐하는 이 잉글랜드 영토 내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이 영토 내의 모든 재산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다. 그 재산이 교회에 속해 있든지 시정부에 속해 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지배권이 여왕 폐하에게 있다. 왕들은 모든 국가를 다스리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한 정도에 따라서 다스려야 한다. 그것들이 교회에 속한 것이든 세속에 속한 것이든 시민을 다스리라고 주어진 칼로써 완고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제어해야 한다.”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은 매우 능동적으로 교회 일을 간섭하고 나섰다는 것이 역사의 한 사실이

20세기 초엽까지도 영국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인 사회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을 뿐이라는 의견이 팽배했다. 리처드 후커는 국가의 수장이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였다. 사람들의 관점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경건한 군왕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후커는 그 왕이 경건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지 않았다.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이후에 경건치 못한 왕들이 많았다. 불행히도 후커가 설정해 놓은 교회 정치의 법칙들이 그 왕의 도덕적 품격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적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후커가 ‘경건한 왕’과 국가에게 최고의 주권을 주면서도 국가의 주권자가 교리의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라하지는 않았다. 교리 문제를 주도하고 규정하는 것은 교회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물론 교회가 규정한 교리의 승인 여부는 국가에 달려 있었다.

더 나아가 후커는 감동들은 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삶은 선택이다

마침 진정에 다녀왔다. 진정이 하와이라 많은 분들이 ‘ 좋겠다’ 부러워하는데 막상 그곳에 가니 사람은 많은데 믿음의 동지가 없으니 혼자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아 ‘사모님 잘 계세요?’하는 한마디 문자에도 눈물이 핑 돈다. 참 건물도 사람도 다 남아 있는데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어떻게 저 푸른 바다는 언제나 바라지도 않은 새파란 본연의 자태를 지리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로 오신 하나님을 본다.

참 많은 것들이 변해있다. 웬지 사람들은 원하는 삶보다는 원치 않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 무릎이 고장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아픈 담뱃뚝이 살아 붓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아파온다. 세월이 험악해가고 나이가 든 탓이겠지.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연약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너는 아프지마’ 기쁨으로 하는 말이 금방 눈물이 되어 떨어질 것 같다. 공동체로 만나서 충분히 알아주고 공감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함으로 다가온다.

내가 짐작 나를 만나는 방법을 알고, 나를 이야기하고 나의 감정의 날씨를 알아주어서 내 생각과 느낌과 사실을 구분하는 법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더라면, 그렇게 생각의 감옥에서 감정의 노예로 살면서 힘들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좀 더 가족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만나 주고 그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었을 것이고 그야말로 말씀이 말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 삶은 선택이다.

살아가면서 참 운이 없다고, 없는 게 참 많다고 생각한 그 생각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라는 생각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도 불행한 시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네들, 그 운은 내가 움직여서 만들 수 있는 것을, 그 운은 내가 쓰는 말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그냥 의식이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면 잘 지내고, 그게 안된다 싶으면 내 의지로 사랑해 버리면 되는 것을... 그게 말처럼 쉽지 않지만 그렇게 관계의 달인으로 누구와도 잘 놀 수 있는 능수능란한 인생이 정말 많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어차피 다 늙어 가는데, 그래서 걸음이 느려지고 눈이 흐려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말도 어눌어지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퇴색되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네 가슴이 우울해 진다 해도, 늙어야만 만나는 깨달음이 있고 삶의 깊이와 향기와 맛이 있기에... 말씀이 말하는 걸사들은 후회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늙음은 서러움이라는 생각의 공식을 우리 뇌에서 빼 버리고, 젊음은 젊어서 좋고 늙음은 늙어서 좋다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리 슬프지않은 삶이리라.

그래서 우리의 노년이 자식들이 서운하고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가슴에 꼭꼭 입력하고 슬프고 외롭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식들이 그냥 잘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고, 손자들이 잘 커주는 것만도 예쁘고 자랑스럽고, 친구들이 고맙고 자연이 고맙고 교회가 고마워서 교회 가는 날이 설레고 기다려지는, 그런 가슴 뛰는 노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우리 오늘도 그렇게 삶의 진수를 살고 싶어서,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고 싶어서 삶을 정면으로 만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속에서 가장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힘을 길러 우리 남은 인생을 힘 있는 선택공(주인공)으로 살아 내리라.

changsam01020@gmail.com

루터는 재세례파 농민폭동 보고 에라스투스파에 동조 후커, 교회정치법 제정... 국가 주권자가 감독 지명 권한 가져 크롬웰 공화정 때 영국의 종교적 관용과 자유위해 많은 일해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진정한 참된 관점으로 부터 이탈한 것은 소위 ‘농민 폭동’이라 일컫는 사건 때문이었다. 그것은 재침례파(Anabaptists)로 알려진 사람들의 폭동이었다.

재침례파 사람들은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 국가와 완전히 손을 끊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백성들의 모든 삶의 상세한 부분까지 지시하는 극단으로 나아가며 ‘자기들이’ 국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종의 신정정치(Theocracy)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 두 운동들이 마틴 루터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모든 집권자들이 악함을 품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지금 독일로 부르는 그 땅의 여러 지역의 선거후(dector, 신성로마제국에서 황금문서에 의해 독일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일곱 제후들)들과, 더 나아가 황제도 그렇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 결국 종교개혁 전체가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권위가 있어야 함을 느꼈다.

그래서 루터가 내린 결론은 권

(3)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인 헨리 8세는 자신이 국가 뿐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최고의 머리로 통치자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Edward VI)도 여전히 같은 것을 주장하였다. 또 헨리 8세의 딸인 메어리(Mary)와 또 다른 딸 엘리자베스 1세도 그렇게 하였다. 16세기의 어려움은 교회와 국가가 너무 친밀하게 붙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매우 큰 역할을 감당하여 국가와 교회를 분리해 내는 것이 지극히 어려웠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가 가진 교회관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로 부터 공격을 당하는 계속적인 위험 아래 있었다. 당시 스페인은 참으로 강력한 나라였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교회를 장악하지 못할 때 국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종교 통일령과 함께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간의 중용(Via Media)을 지키는 균형 잡힌 종교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 영국 성공회 39개 신앙 조항이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의 ‘39개 신앙조항’(Thirty-Nine Articles)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조항

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그린달(Grindal)이라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었는데, 그는 종교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를 제거했으니, 그렇게 할 권세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왕은 다른 많은 국면들의 경우에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며 권세를 내세우곤 하였다. 다른 문제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들에 있어서도 최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해야 한다고 강압하였다.

(4) 후커의 “교회 정치의 법”

엘리자베스 통치 말년에 이 문제에 있어서 권위자로 인정받게 된 대단한 인물이 리처드 후커(Richard Hooker)인데, 그는 유명한 책 “교회 정치의 법(Laws of Ecclesiastical Polity)”을 썼는데 그 책은 1594년 출판되었다. 그는 전형적인 에라스투스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썼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인 동일한 사회를 두 다른 각도에서 숙고할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교회의 법을 제정할 완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라 다만 그들에 의해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곧 국가의 주권자는 감독들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거룩하게 서품(혹은 장립)하여 감독들을 거룩하게 서품할 권세를 가졌다고 하였다. 영국 국교회 내에서는 그것이 아직도 다소 법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후커와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바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려고 했던 정직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분명 불행하였다. 수세기 동안 교황권의 지배를 받던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교황의 권위와 단절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종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권위의 원리를 찾고 있었다.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느낀 것이다.

그들은 결국 교회가 하나의 영적인 사회임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주권자들과 국가가 감독들을 지명할 권한은 있지만 감독들을 만들 권한은 없다는 구분을 지었다. 그래서 영국은 아직도 왕이 감독들을 지명하고 있지만 현대에는 영국 국교회 내에서조차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9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강남중앙감리교회</p> <p>담임목사: 노재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20</p>	<p>군포제일교회</p> <p>담임목사: 권태진</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02)2643-8754~5, Fax: 2648-4662 서울시 군포구 서초동 870-15호</p>	<p>금란교회</p> <p>담임목사: 김정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kumran.org Tel: (82)2-43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화곡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장항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침례: 오전 11:00, 7:00 금요찬양: 오후 9:00</p> <p>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평우</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p> <p>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876(교우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새이덴교회</p> <p>담임목사: 소강석</p> <p>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p> <p>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p> <p>담임목사: 황정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p> <p>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20</p>	<p>성실교회</p> <p>담임목사: 김영복</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www.seongsil.or.kr Tel: (82)2-959-999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p>	<p>성일교회</p> <p>담임목사: 윤상욱</p> <p>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p> <p>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동 713-26호</p>
<p>수정교회</p> <p>담임목사: 이성준</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p>	<p>승동교회</p> <p>담임목사: 김철승</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p> <p>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번지</p>	<p>시온교회</p> <p>담임목사: 김철승</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말-토)</p> <p>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동 419-2</p>	<p>신길교회</p> <p>담임목사: 이기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p>	<p>신천교회</p> <p>담임목사: 박영석</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p> <p>Tel: (02)418-3181~3,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새마을동 172-2(142-073)</p>	<p>신촌교회</p> <p>담임목사: 박노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30</p> <p>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시 용인구 용인동 49-45</p>	<p>안암 제일교회</p> <p>담임목사: 이준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0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용인동 50-1 www.anamjeil.or.kr</p>		
<p>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p> <p>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강남 황정시 성산동 415 www.yangokg.org</p>	<p>왕성교회</p> <p>담임목사: 김요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p> <p>담임목사: 신일권</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p> <p>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주안교회</p> <p>담임목사: 주중중</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p> <p>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p>	<p>창대교회</p> <p>담임목사: 최홍도</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344-23</p>	<p>청주주님의교회</p> <p>담임목사: 최현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5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www.anamjeil.or.kr</p> <p>담임목사: 이준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곤경 속에 피어오른 거룩한 꿈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일은 기다리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천성적인 성품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훈련되지 않으면 갖출 수 없는 덕목이다. 곤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기다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전

적으로 매달리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기도로 나타나야 한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끈을 놓는다면 더 이상 기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씀이나 일을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끈을 놓는 것은 당신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하나님을 주목

하라.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받으라. 그리고 곤경의 상황들을 날날이 하나님께 아뢰라.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인이 기대처럼 뻗어 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의 척박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였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라.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

도 가운데 계속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두기 위하여 씨뿌려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곤경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면 모든 곤경의 상황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당신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곤경의 상황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곤경의 상황에 처하기 이전의 시절들을 더욱 그리워하지 않는가? 그래서 더욱더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다. 당신 자신에 대한 초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초점을 옮겨 보라. 하나님의 은혜는 곤경의 상황에 처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 오히려 곤경에 처해 있을 때가 이전보다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시간이다. 곤경 가운데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도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곤경의 상황 자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다 음과 같이 말씀드리라. "하나님, 이제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현재의 곤경의 상황이 기대보다 오래간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께서 저의 기쁨이 되시고, 저의 구원이 되시며, 저의 피난처가 되시고, 저의 요새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함께 그분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왜 그토록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를 기진맥진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이 현재의 생활 태두리 그 이상을 벗어날 수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세의 생활에 묶여서 주저앉아 있는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기 받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무제한으로 꿈틀거리며 피어오를 것이다. 오늘 하루가 왜 행복한지 아는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응수되기 때문이다. 그 꿈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향한 꿈이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꿈을 가지라.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 꿈을 가지라. 영혼들을 위해 말씀으로 세우는 꿈을 가지라. 그 꿈을 위해 달리다가 마무리 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 없이 그냥 지내겠는가? 그러지 말라. 정말 그러지 말라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낭비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을 위해 조용히 무릎 꿇어보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은 당신이 처한 곤경을 소화해 내고도 남는 능력이 될 것이다.

2, 3세 함께 참여... "역사전수 고무적"

중부교협 주관 제 21회 광복절기념 콘서트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회장 차권희 목사)가 주관한 제 21회 광복절기념 콘서트가 12일 오후 5시 세리토스신학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열렸다. 차권희 목사는 "우리의 해방절인 8.15광복절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열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며 "특별히 1세들은 물론 2세와 3세들까지 함께 해방절을 기념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 우리나라들은 비록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다 같은 우리 민족이다. 따라서 광복절을 맞이해 역사를 전수하게 된 것이 고무적"이라 말했다.



남가주중부교회 주관 제21회 광복절기념 콘서트가 세리토스신학교회에서 열렸다

이아모스 목사 사회로 시작된 포이애마 여성합창단(지휘 광명규), 세리토스신학교회 연합찬양대(지휘 김연주), 오렌지신학교합창단(지휘 최영민), 이정화 가야금 연주자,

박수정 첼리스트, 이지원 피아니스트의 가야금, 첼로, 피아노 3중주 연주가 있었으며 2세들로 구성된 웨이크시티 찬양팀과 미주청소년 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그리고

이은희 켈리그래퍼가 켈리그래피 퍼포먼스와 간증을 했으며 선우권 목사(세종온누리교회)가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창학112주년 숙명여대 남가주 동문합창단 정기연주회가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박성근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문희 단장은 "모교 창학 112주년을 맞이해 어떠한 악기보다 곱고 어떠한 꽃보다 화려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었다"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동문들과 연주회를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기연주회가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게 되는 연주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순 숙대 남가주총동문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정기연주회는 '영광을 하나님께', '고향길', '강 건너 봄이 오듯', 'You raise me up', '꽃구름 속에' 등을 불렀다.

그리고 테너 황호진, 소프라노 김소현, 이지연, 강다영, L.A남성신교합창단(지휘 원영진), 바이올리스트 데이빗 박이 찬조 출연해 이날 연주회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한국 장신대학교 신대원 84기 미주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졸업 25주년 홈커밍데이 때 열려

한국 장신대학교신대원 84기 미주학술대회

한국장신대학교 신대원 84기 미주학술대회가 13일과 14일 양일간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에서 장신대 신대원 84기 주최로 열렸다.

장신대 신대원 84 동교회 회장인 민경은 목사(성덕교회)는 "장신 84기들이 의기투합하여 학술대회를 됐다"며 "84기동기들 중에는 교수도 많고 목회도 충실히 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열정적으로 섬기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 장신대 자체 내에서도 동기회가 주최한 학술대회를 비롯한 세미나는 저희 84기가 주최한 학술대회가 최초"라고 설명했다.

민 목사는 "장신대는 졸업 후 25주년이 되는 해 홈커밍데이를 하게 되는데 홈커밍데이 때 모인 동기들이 학술대회를 하게 됐다. 지난 6월 4일과 5일 서울에서 열었으며 이번

에 동기간 이상명 목사가 총장으로 있는 미주장신대에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장신 84기들은 현재 한국교계의 중진들이다. 이들을 통해 한국교계가 새바람을 일으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한국은 물론 선교지까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은 목사 사회로 시작된 첫날 학술대회는 김인식 목사(전 KPCA 총회장)가 축사했으며 김휘현 목사가 기도한 뒤 서정운 교수(전 장신대 총장, 전 미주장신대 총장)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한인 디아스포라와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서정운 총장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선교의 완전한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 언급하고 "선교는 언제나 자기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는 형식으로 시작됐으며 역사 안에서 복음은 늘 타지사람, 또는 타문화권에서 온 사람에게 의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8면에서 계속> 교회를 국교화 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들로써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국교화가 된 영국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지시할 권한을 주장하였다. 찰스 1세(Charles I) 때 이런 주장을 대항하는 싸움이 있었다. 또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의 공화정 기간 동안에 완전하지는 아니지만 그 규정이 중시되었다. 크롬웰은 실수가 있었지만, 영국의 종교적인 관용과 자유를 위해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었다.

그러나 그의 공화정은 아주 짧은 기간만 존재하였다. 찰스 2세가 복원되어 통일령(Act of Uniformity)이 반포됨으로 1662년 2000명의 성직자들이 추방당하였다. 또 여러 압박을 가하는 집회에 관한 법률조항이 발효되었다. 이런 일이 1688년까지 계속되다가 윌리엄과 메어리 시대에 종교 관용령(Act of Toleration, 1689)이 통과되고 나서야 모든 비국교들에게 예배의 충분한 자유가 허락되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유니테리안(Unitarians,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일신론자들에게 대해

서 총장은 한국 디아스포라 선교를 다루면서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오만과 자기도취에 빠져있다. 큰 교회 많은 교인들, 건물과 시설들을 자랑하면서 본질적으로 비복음적인 작태가 심하다. 매일 양치질을 하고 세수하듯 부단한 자기반성과 회개와 갱신을 통해 오만과 나태와 희망을 예방하고 진취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며 "장신대의 졸업생들이 전 세계의 90여 개 국가에 약 1200명이 살고 있다. 국내 교회들과 해외에 있는 동문들간의 더 긴밀한 구체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민족 교회와 디아스포라의 선교가 더욱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날 오전은 김창환 교수(풀러신학교 부학장)가 △선교와 교회에서의 공적 중요성, 이상명 박사가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 사회와 교회 과제라는 주제 강의를 했으며 오후에는 민경은 목사가 △한국 장로교회의 초기 러시아 선교, 주혁로 목사가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응답, 채병관 선교사가 △브르네오 동말레이시아 선교와 사역현황, 이성우 선교사가 △남미 선교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그러나 그의 공화정은 아주 짧은 기간만 존재하였다. 찰스 2세가 복원되어 통일령(Act of Uniformity)이 반포됨으로 1662년 2000명의 성직자들이 추방당하였다. 또 여러 압박을 가하는 집회에 관한 법률조항이 발효되었다. 이런 일이 1688년까지 계속되다가 윌리엄과 메어리 시대에 종교 관용령(Act of Toleration, 1689)이 통과되고 나서야 모든 비국교들에게 예배의 충분한 자유가 허락되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유니테리안(Unitarians,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일신론자들에게 대해

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곧 장로교도들과 회중교회들과 침례교도들은 예배를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18세기 말엽에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도 예배의 자유가 허락되었다. 이렇게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관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가 국가를 다스릴 권위를 가르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를 주장할 국가의 권위를 가르쳤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두 관점이 다 수정되었다. younsuklee@hotmail.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지고서 속도를 내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일흔에 목회자를 은퇴하며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회한이 가득한 메시지를 던지는 노 목사님이 계셨다. 이를 들으시던 여든의 목

회자가 다시 한마디를 하신다. '인생이나 사역, 모두가 늘 미완성의 상태에서 내려놓는 것이며, 주님은 우리의 완성을 두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 달려온 마음중심을 보신다네.' 마음중심을 보심이 무엇인가? 그의 삶의 방향, 사역의 방향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말씀이다. 사역뿐이 아니라 전 인생의 삶도

그러하지 않았는가? 분주하고 복잡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방향과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 앞에 설지라도 한결 같이 주를 향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삶을 진행할 때, 비록 빠른 세상, 바쁜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께 서 보람장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창학 112주년 맞아 '목소리' 로 축하

숙명여대 남가주 동문합창단 정기연주회 성황

창학 112주년을 맞은 숙명여대 지휘 노혜숙) 정기연주회가 11일 남가주 동문합창단(단장 김문희, 오후 7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 주최 광복절 73주년 기념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광복절 73주년 기념예배..설교 김기동 목사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 주최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회장 김희창 목사) 주최 광복절 73주년 기념예배가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혜성 목사)에서 11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 회장 안신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ROTC 출신인 김기동 목사(총만교회 담임)가 설교했으며 성결대학교 교수 손석원 박사가 강연했다.

또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는 박상구 목사가 선교보고를 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샘 신 목사(남가주목사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

동부교계 기사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취임 예배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이사회가 주관하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취임 예배가 9월 2일(주) 오후 5시 퀸즈장로교회당에서 열렸다. 이임은 장영준 박사, 취임은 김성국 목사가 하게 된다.

▲문의: (718)463-7163

글로벌한인여목역 창립 2주년 감사예배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사) 창립 2주년 감사예배가 9월 12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순복음연합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강사는 김삼수 목사(푸른하늘교회 담임).

▲문의: (646)247-8258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7기 개강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 이사장 한재홍 목사)가 주최하는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7기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지" 주제로 8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주만에 걸쳐 매 월요일 저녁 7시(식사), 8시-10시(강의) 진행된다. 장소는 친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이며 등록비 100 달러. 종강 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온두라스 단기선교가 예정돼 있다.

▲문의: (917)963-9356 김경열 훈련원장

뉴욕한인목사회 장학금 및 격려금 신청

제 46회기 뉴욕한인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2018년 현재 회원 자녀 신학생과 회원교회 EM 사역자를 대상으로 장학금과 격려금을 전달하기 위해 추천을 받고 있다. 신청마감은 8월 20일 오후 5시 까지 이메일(amenjd@gmail.com)로 하면 된다. 우편은 효신장로교회(42-15 166th, Flushing, NY 11358)로 봉투겉면에 '장학금 신청서'라고 써야 한다. 신청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EM사역증명서(EM격려금신청자), 자기소개 및 신앙간증문(A4-2 페이지 내외/12pt). 전달식은 8월 26일(주) 오후 5시 효신장로교회 2층 친교실에서 열린다.

▲문의: amenjd@gmail.com

평신도성서대학 설립25주년 기념집회

프라이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가 부설 평신도성서대학 설립 25주년을 맞아 기념집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최고의 이스라엘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진산 목사로, '그 땅이 주는 복음'(신8:1-10)이라는 주제로 8월 16일부터 19일(주)까지 목, 금, 토요일 저녁 8시, 금, 토요일 새벽 5시 25분, 주일은 1부 8시15분, 2부 10시 40분이며, 히브리어 특강은 15일과 16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열린다.

▲문의: (718)321-7800

세계찬양대합창제 후원의 밤

뉴욕기독교방송(cbsn, 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세계찬양대합창제 후원의 밤이 9월 9일(주) 오후 6시 대동연회장서 열린다. 티켓은 일인당 100달러. 수익금은 장애인과 노숙인 사역단체 등 10곳에 전액 후원한다. 한편 세계찬양대합창제는 9월 23일 카네기홀에서 열린다.

▲문의: (718)414-4848



지난 10일 금강산 식당에서 WHF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류제봉 회장과 김명순 이사장 및 이사진들이 참석했다.

'주일강단을 회복하라' 뉴욕 뉴저지서 연속

미주동부총신대신대원동문회 세미나, 강사 박용규 교수

미주동부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회장 이재철 목사)가 주최한 박용규 교수 초청 2018 여름 뉴욕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3시간에 걸쳐 나무교회(담임 정주성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박용규 교수(총신대 역사학)는 '주일강단을 회복하라-성령이 이끄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주제로 △주일강단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제안과 △바람직한 설교자 상비교인구 모델을 제시하고 △새 사도행전을 설교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했다.

세미나는 정주성 목사 사회로 박희근 목사(뉴욕동원교회) 기도후 시작됐으며 세미나 마지막에는 최호섭 목사(뉴욕영락교회)의 간증이 있었다.

다음은 세미나 내용 요약이다. △주일강단 회복을 위해서는 (1) 목회자의 영적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담임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된다. (2)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목회자가 먼저 말씀으로



미주동부총신대신대원 동문회 주최 박용규 교수 초청 2018 여름 뉴욕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은혜 받으면 교인들이 은혜 받는다. (3)목회자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바울은 말씀과 하나님을 나란히 두었다(행20:32). (4)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계속 외쳐져야 한다. 목회자는 청중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바람직한 설교자 모델로 이동원 목사와 옥한흠 목사를 제시했다. 이동원 목사는 (1)언어적 표현의

전부적 재능(노력 포함) (2)깊은 영성있는 설교 (3)성경을 정확히 보는 안목 (4)뛰어난 적응 (5)절절한 예화(경험) (6)교회 역사 사랑 (7)아름다운 삶 등을 있다고 소개했다.

옥한흠 목사는 (1)한국교회 성장의 흐름 주도한 제자운동(조용기 목사의 성령운동과 함께) (2)성령

입양인 법적지위 확보... '달려 기도운동'

WHF, 9월 22일 한국전통문화축제 개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들의 권익증진과 법적지위 확보 및 입양인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기관 WHF(World Hug Foundation)가 오는 9월 22일(토)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한국 전통문화축제를 연다. 또 지속적인 '1달러 릴레이 기도운동'(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0일 정오에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류제봉 회장은 "이번 행사는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문화와 한민족으로서 역사의 고취를 위한 행사로 한인 2세 자녀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교육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위해 WHF는 당일 참석한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궁중 의상 착용식과 전통음악 연주 및 고전무용 등의 공연과 한국음식 만들기 등 진행한다.

지난 7월 뉴욕교협이 주최한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를 기점으로 출발한 '1달러 릴레이 기도운동'과 관련해 김명순 이사장은 "한인 교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입양인들의 시민권 부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 뿐 아니라 범 동포차원에서 촉발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현재 한국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인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위해 올 10월부터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1달러 릴레이 기도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석한 뉴욕교협 회장 이만호 목사는 "할렐루야대회에서 '1달러 릴레이 기도운동'을 시작했다. 고아(입양아)를 돕는 이 일이 예수 사랑 실천운동"이라며 "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WHF를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WHF는 현재 법사위에 상정중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도와 펀드조성, 로비 등을 통해 진행 하고 있다.

2001년 이전 입양인들 중 당시 18세 미만은 일제히 시민권을 부여받았으나 18세 이상자는 받지 못해 현재 3만5천 여명이 입양아 비자만 소지한 상태이며 이중 2만 여명이 한국인이다.

길 이사장은 "초기 한국 입양아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을 통해 기독교 가정에서 입양됐으나 이중 20%는 양부모와의 불화 혹은 파양 등으로 반 기독교적 태도를 갖고 있다"며 "특히 이들을 위해 기도와 전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F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646)254-2992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제 6차 다민족선교대회 1부 예배에서 뉴욕장로성가단이 찬양하고 있다.



제 6차 다민족선교대회 1부 예배에서 뉴욕장로성가단이 찬양하고 있다.

"서로 사랑하며 같이 일하자"

뉴욕장로연합회 주최 제 6차 다민족선교대회

뉴욕한인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로)가 주최한 제6차 다민족선교대회가 "서로 사랑하며 같이 일하자"라는 주제로 8월 12일 오후 5시부터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김영호 장로는 "뉴욕의 다른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주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 세계선교에 앞장서려는 것이 집회의 최고의 목표"라고 말했다.

대회 주강사 최창섭 목사(뉴욕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는 "열방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들"(고후5:18-20)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시작하며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최창섭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 선교지이며 땅 끝이라고 선포하며 "선교대회가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가슴에 복음을 전

운동의 역기능 한계를 극복하게 함 (3)오늘날 한국의 대표적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 (4)가장 탁월한 강해 설교자로 성경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전을 주고 청중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며 철저한 준비로 정력된 설교로 영적 결단과 도전을 준다.

또 옥한흠과 이동원은 하영호 흥정길과 더불어 복음주의 4인방의 주역으로 성경의 무오성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간주하며 교회와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구원하려 하며 연합운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사도행전을 설교해야 하는 이유로는 (1)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사이며 (2)교회의 영적 길을 정확히 제시하고 (3)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제시하며 (4)성령이 이끄시는 사도행전적 교회(기도, 말씀, 회개, 성령충만)에 대해 설명했다.

세미나는 박용규 교수를 강사로 14일 뉴저지 영광교회(담임 정광희 목사)에서 '주일강단을 회복하라-교회사에 나타난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주제로 계속됐다. (유원정 기자)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과 연합을 통해 복음을 더 힘있게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대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가 시무하는 에벤에셀선교교회는 한 지붕 아래 한국어, 영어, 중국어 부흥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서로 부족한 것을 나누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아름다운 다민족 화합을 이루는 교회다.

설교는 이수일 전도사의 통역으로 다민족에게도 메시지가 전해졌다.

1부 예배는 사회 송윤섭 장로, 찬양과 경배 효신교회 찬양팀, 대회사 및 기도 김영호 장로,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최창섭 목사, 헌금 피아노 특주 이진아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헌금기도 이수일 전도사(에벤에셀선교교회), 축도 이만호 목사(뉴욕교협 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16면으로 계속)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동부(NY, NJ) 교회</h1>				<h3>뉴욕갯세미네교회</h3>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nygodsp@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semane.org</p>		<h3>뉴욕목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송병기</p> <p>주일 1부예배: 오전 0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회: 오후 08:00 금요성경회: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kyang.org</p>	
<h3>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이윤석</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화,토)</p> <p>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p>	<h3>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천</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b.org</p>	<h3>뉴욕새벽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p>	<h3>뉴욕새생명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준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김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센트럴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htt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3>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3> <p>담임목사: 이만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18)746-7577, Fax. (718)9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tichon.com</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3>리빙스톤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성경연구회: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3>빛과소금교회</h3> <p>담임목사: 정순원</p> <p>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0: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8:0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3>주비교회</h3> <p>담임목사: 이규본</p> <p>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 오전 6:00 금요성경회: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p>	<h3>퀸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9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qcc.org</p>	<h3>퀸즈한인교회</h3>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h3>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금요찬양: 평일 저녁 7:30 금요찬양: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 토요일 오후 7:30</p> <p>www.p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3>브라질 서술교회</h3>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3>브라질 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봉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3>브라질 새소망교회</h3> <p>담임목사: 박재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p> <p>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p>	<h3>아르헨티나 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최광연</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 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3>칠레 한인연합교회</h3>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40 영,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3>토론토 가든교회</h3> <p>담임목사: 김성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3>하와이 행복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3>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일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p> <p>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3>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h3> <p>선교사: 임한근 목사</p> <p>멕시코 번식 센터 교구</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부 새벽기도 후 설교)</p> <p>Tel. (52)333-3507-4111 E-mail: haninkr@hanmi.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p>	

제 1회 2018 광복절 경축 찬양제

오렌지카운티목사회 주최, 6개 합창단, 오케스트라 공연



OC목사회 주최 제1회 2018 광복절 경축찬양제에서 아리랑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연세아카데미 원장 이취임식에서 이임원장 김영대목사가 신임원장 지용덕 목사에게 취임패를 증정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남상국 목사)가 주최한 제 1회 2018 광복절 경축찬양제가 11일 오후 4시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열렸다. 박희성 목사(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찬양제는 미국국가와 애국가 제창, 광복절 노래를 회중들과 합창했으며 공운팔 목사(아무르 단장) 이 테너 색소폰 연주가 있었다. 이어 '서대문 형무소를 찾은 외국인 손님!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제목의 동영상 소개가 있었으며 아리랑합창단(지휘 김중리), 실비치남

성중창단(지휘 백경환 목사), 위트컴합창단(지휘 김상기), 은혜한인교회 은혜성가단(지휘 윤태중), 레위남성합창단(지휘 광명규)가 찬양했으며 아무르오케스트라(한국 육해, 공군, 해병대 경찰 출신들로 구성) 연주가 있었다. 한편 찬양제가 열리기전 가졌던 1부 예배는 김근수 목사(부회장) 사회로 시작, 윤건상 목사(부회장)가 개회 기도했으며 크로마합주단 연주, 조현영 목사(OC교협 부회장)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남상국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문현봉 목사(목사회 자문위원회 회장)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제28회 갓스이미지 정기공연이 라미라다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대 원장 지용덕 목사 "최선 다하겠다"

연세아카데미 원장 이취임 감사예배

미주지역 이민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출범된 연세아카데미 원장 이취임식이 12일 오후 6시 미주양곡교회(담임 지용덕목사)에서 열려 2대 원장 지용덕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취임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기도 고재원 박사, 설교는 김정복 박사가 맡았다. 김정복 박사는 '네 곁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마6:5-7)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주의 일군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이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며 "모든 삶과 죽음,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 귀한 사역도 기도로 이뤄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도성환 박사(연세풍문회장), 류당열 박사(교협중경회장), 박종대 박사(KCCD이사장), 장광춘 박사(복음주의장로회 총회장)의 축사가 있을 후 조종곤 박사(연목회 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아무르연주단(단장 공운팔 박사)의 특별연주는 이날 행사를 더욱 빛냈으며 참석한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연세아카데미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연세아카데미는 2016년에 창설돼 이민교회의 지속적인 부흥과 지도자들의 지성과 영성개발, 평신도지도자들의 재교육과 부흥도모, 모교(연세대)의 장점을 이민교회와 사회에 접목시키고 동기들과의 친교와 행복한 교제를 위한 비전을 품고 사역해오고 있다. (이성자 기자)

"사역 커졌지만 초심 잃지 않겠다"

제 28회 갓스이미지 정기공연 성황

갓스이미지(대표 변용진 목사)는 제 28회 정기공연을 라미라다극장에서 11일 오후 3시와 7시에 개최했다. 변용진 목사는 "28회 정기공연을 갖게 됐지만 28이라는 숫자는 너무 생소하고 꿈만 같다"며 "제자들이 학부모들이 돼서 돌아오는 현실 속에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났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변 목사는 "강산이 세 번 변화는 과정 속에 세상문화도 무척 많이 변했다. 아이들 역시 점점 혼돈의 세상에서 힘들어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 갓스이미지 사역이 점점 커졌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다"고 말하고 "변함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찬양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LA토들러 팀(3-5세), LA지회팀(1-8학년), LA주니어팀(1-3학년), LA팀업(4-8학년), LA팀투(8-12학년) 등 갓스이미지의 4개 그룹이 그동안 갈고닦은 찬양과 댄스를 선보였다. 공연장 청중들은 아이들이 온몸과 마음을 다해 부르는 찬양과 동작 하나하나에 격려의 박수와 환호를 아끼지 않았다. (박준호 기자)

전세계 24명 37개 작품 출품

사진러브 제 11회 작품전시회

사진러브(회장 장제인) 제 11회 작품전시회가 10일부터 14일까지 중앙일보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작품전은 캘리포니아를 비롯 오레곤, 워싱턴, 유타, 알래스카, 유럽,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24명의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37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장제인 회장은 "미주지역에서 사진이 열정을 이어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진러브의 11번째 작품전시회를 열게 돼 감사한다"며 "출품된 작품들이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장제인 회장은 "미주지역에서 사진이 열정을 이어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진러브의 11번째 작품전시회를 열게 돼 감사한다"며 "출품된 작품들이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동신교회 40주년 설립기념예배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는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예배를 19일(주) 예배시간에 갖는다. ▲문의: (714)680-9886, 7

한인연합감리교회 서부지역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서부지역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가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레이크 타호에 위치한 Zephyr Point Conference Center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 서부지역 한인목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문의: (310)780-3439이창민 목사, (213)514-2027김진동 권사

Memories, and Present 음악회

Memories, and Present 피아노 3중주 음악회가 19일(주) 오후 7시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626)965-9191

한미연합회(KAC) 모의유엔(MUN) 신입생 선발

한미연합회(KAC-LA)가 2018-2019년도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MUN)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을 모집한다.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은 지구촌 이슈에 대해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대중연설과 발표 등의 훈련을 통해 미래 한인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육성하는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유엔(UN) 회원국의 대사로 모의 유엔 회의에 참여하며 활동 기간 중 3번의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다. 회의와 연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조사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의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견문을 쌓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KAC MUN 웹사이트(www.kacla.org)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인터뷰는 8월 13일(월)부터 지원서 제출 순서대로 실시된다. ▲문의: (213)365-5999, info@kacla.org

샌디에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박준호 나눔콘서트

샌디에고 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강용훈 목사)는 박준호 나눔콘서트를 19일(주) 오후 5시에 초심이라는 주제로 갖는다. ▲문의: (619)223-9999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부흥집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부흥집회가 17일(금)부터 19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7일(금) 오후 7시, 18일(토) 오전 5시30분, 오후 7시, 19일(주) 1-3부 예배다. ▲문의: (808)5369-7244

시애틀형제교회 창조과학세미나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는 창조과학세미나를 17일(금)과 19일(주)에 갖는다. 강사는 한용봉 교수(한국창조과학회 회장,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이며 일정은 17일(금) 오후 8시, 19일(주일) 오후 2시. ▲문의: (425)488-1004



사진러브 제11회 작품전시회에서 버지니아한 작가(남가주사랑의교회, 사진주축)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담임목사 청빙

California 주 Norwalk시에 위치한 미국장로교(PCUSA) 소속 신일장로교회(Shin Il Presbyterian Church)를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정규 신학대학원 (M. Div) 졸업자로 현재 PCUSA에 멤버로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가 가능하신분 미국내에서 체류와 목회를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분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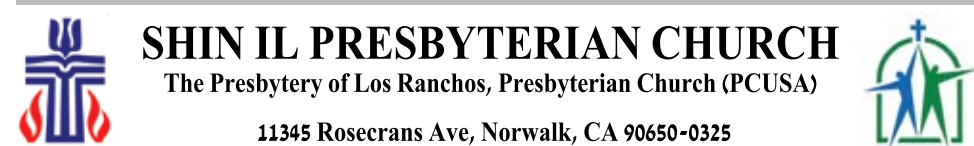
이력서 1부
목회 비전 및 신앙간증서, 가족 소개서, 본인 사진
설교 2편 (CD나 동영상 website주소 제출)
목사 안수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추천서 2인

서류제출 방법 및 마감

이메일: shinilpnc2018@gmail.com
제출 기한: 2018년 9월 15일까지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및 서류제출은 e-mail로 하시되, 설교 CD는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청빙위원회 (Pastor Nominating Committee)
Shin Il Presbyterian Church
11345 Rosecrans Ave., Norwalk, CA 90650

신일장로교회 청빙위원회
청빙위원장 : 유병용장로



충현선교교회 설립 33주년 감사예배에서 이용남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건강한 교회로...이용남 목사 초청부흥회

충현선교교회 설립 33주년 감사예배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 rk 교회설립 33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주일예배시간에 감사예배를 가졌다. 민중기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이용남 목사(장석교회 원로)가 강사로 나서 '신앙건강진단'(고후 13: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용남 목사는 "한국의 경우 2년에 한번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건강진단을 하게 한다. 우리영도 건강진단을 하게 된 건지 진단해봐야

건강한자는 음식을 잘 먹지만 병든 자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진다. 우리영도 건강하면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고 깨달음과 감격 있고 말

한다"며 "충현선교교회가 33년이라는 역사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데, 그것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충현선교교회가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첫째 말씀이 송이꽃처럼 단가? 건강한자는 음식을 잘 먹지만 병든 자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진다. 우리영도 건강하면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고 깨달음과 감격 있고 말

씀원리대로 살려고 한다. 말씀이 삶이 지침이 됨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 늘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돼야 한다. △셋째 늘 찬송하는가? 찬송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 찬송 중에 거하시어 주님을 찬양하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 △넷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은혜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싸줘야 한다. △다섯째 늘 겸손해야 한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최고덕목은 겸손이라 했다. 겸손할수록 은혜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여섯째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은혜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아닌게 없다. 감사와 믿음은 함께 간다. 감사가 메마르면 믿음도 메마라진다. △일곱째 전도할 열의가 있는가? 은혜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전도해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본 교회는 교회설립 33주년을 맞아 9일부터 12일까지 이용남 목사를 강사로 기념부흥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우상숭배의 죄, 지금 우리의 죄” 신사참배 80년, 대대적 회개운동 편다

올해는 조선예수교장로회(예장)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지 80주년 되는 해다. 예장은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개최한 제27회 총회 둘째 날인 11일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이에 앞서 감리교와 성결교 등도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뒤 개신교 지도자들은 해방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일제에 부역하며 한국교회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진일행위를 한 목사들이 대거 연행됐지만 대부분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징역형을 받은 목사도 일부 있었지만 별다른 죄책 고백 없이 교계로 복귀해 각 교단의 지도자로 살았다. 수치스러운 신사참배에 회개의 물꼬를 튼 것은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고 한경직 목사였다. 그가 “신사참배를 통해 우상숭배를 한 죄를 회개한다”고 밝히면서부터 한국교회의 회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회개의 열기는 신사참배 결의 80주년을 맞은 올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교계에서는 신앙의 후배들이 우상 앞에 절한 선배들의 죄를 대대적으로 회개하자는 분위

기가 무르익고 있다.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회개운동을 가장 먼저 제안한 곳은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대표회장 윤보환 목사)다. 한기부는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웨라튼서울강남호텔에서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 실무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사참배 80주년 회개 집회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기부는 오는 10월 신사참배 회개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집회 준비위원장에 선임된 윤보환 목사는 “이번 회개운동을 계기로 어떤 우상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거룩한 기도운동을 확산해 나가자”면서 “회개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교단들이 오는 9월 진행하는 정기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가 무효라는 재결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교단 총회장들도 차이의 여사로 기록된 신사참배 결의를 회개하고 재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은 “기독교인들이 국민의례일 뿐이라는 일제의 주장을 수용하고 우상 앞에 허리를 숙인 일

은 신앙과 민족정신에 있어 굴종이자 치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행위를 잊지 말고 민족과 교회 앞에 다시는 그 같은 부끄러운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최기학 총회장도 “결의 당시 우상숭배나 국민의례를 두고 갈등이 컸지만 신사참배는 분명한 우상숭배였다”면서 “이처럼 복음의 가치와 사회의 정서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 때는 복음주의에 입각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선배들이 이 부분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했다. 그는 “교단적으로는 이에 대해 이미 세 차례 회개했지만 또 회개해야 한다”면서 “회개를 계기로 교인들의 삶이 변하고 우리 주변 도처에 산재된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는 계기로 삼자”고 덧붙였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회자들과 출육성도들이 모여 설립한 예장고신 총회는 더욱 결연한 의지를 표하고 있다. 김상석 총회장은 “한국교회사에 있어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인 신사참배 결의는 해방 직후에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사실상 8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면서 “수치의 역사를 더 이상 후배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더욱 결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고 했다.

한기부는 오는 9-10월 열리는 주요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 무효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20~25일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살기념급식기도원에서, 10월 7일 인천 영광감리교회에서 ‘한국교회 우상숭배 일천만 회개 기도성회’를 연다. 또 10월 마지막 주 서울 광화문과 서울시청 등에서 ‘100만인 신사참배 회개운동 연합집회’도 갖는다. 이를 위해 전국교회에 관련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부흥사들은 집회를 열 때마다 신사참배 회개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한기부는 1970년 고 박용목 신현균 목사, 조용기 목사 등이 창립한 부흥사 연합단체로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 설립했다. 각종 부흥집회를 열고 있으며 사랑의 쌀과 연탄 나눔, 노숙인 급식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논의와 조정절차 없이 그대로 강행하려했다”고 비판했다.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일방통행식의 비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동성애문제대책위는 “만일 국가인권기본계획에 성소수자 항목을 도저히 제외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 대책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가가 동성애를 논하면서 탈동성애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국원 6명 사임서…비대위, 재심청구 고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유효 판결’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이 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교단 내 미칠 파장과 추가 법적 공방, 교단 헌법 개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빙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동남노회비대위(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판결문에 따라 총회에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7일 전까지 통보될 판결문 내용이 새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게 된 셈이다. 비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 법원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재심 여부는 총회에서 총대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회기 새로 선출된 재판국원들로부터 재심이 이뤄지게 된다.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새로운 회기에는 3분의 1이 선출된다. 만약 총회에서 총대 3분의 2가 불신임할 경우 재판국원 전원을 새로 선출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예장통합이 2013년 총회에서 통과시킨 ‘교회세습(목회대물림) 금지법’ 해석이 상충했다. 다가오는 총회에서는 정점이 됐던 헌법 2편 28조 6항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를 재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평신도 다수가 동의하거나 은퇴 이후 몇 년 지난 시점에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의 청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는 개정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빙결의 적법 판정 이후

후폭풍도 거세다. 청빙결의 무효에 투표한 예장통합 재판국원 7명 중 6명이 8일 총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조원희(소상장로교회) 목사는 “총회와 교계에 덕을 미치지 못해 고 잘못과 책임을 인식하고 사임서를 냈다”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가을 총회를 앞두고 다음 달 3일 목회자 1000여명이 모이는 ‘명성교회 세습철폐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총대들에게 판결 무효 결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목회자 3000여명이 속한 통합목회자연대는 성명을 내고 “총회에서 총대들이 명성교회 세습과 총회재판국의 판단에 책임을 물어 달라”고 밝혔다.

김지철 소망교회 목사도 김삼한 명성교회 원로목사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고 “총회가 갈등과 다툼의 장이 되고 둘로 갈라지는 것을 이대로 용납하겠는가”라며 안타까워했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아직은 입장을 낼 때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명성교회 세습적법 판결 잘못”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논평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논평이 발표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8개 기독단체가 연합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은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세반연은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부와 권력에 무너졌다”며 “불의 앞에 무기력한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결정은 한국교회가 정의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민낯”이라고 평가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세반연은 “총회 재판국도 불법과 부정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됐다”며 “불의한 자들이 참회에 이르도록 정의를 갈망하는 이들과 연대해 행동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교단 헌법에 따라 바로잡아야” 13일 기독교법률가회 입장문 발표

연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모임인 기독교법률가회(CLF)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국의 판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기독교법률가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청빙 결의는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 임원들이 노회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해 처리했기 때문에 무효”라면서 “총회 헌법 상의 세습금지조항도 위반해 내용적으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명성교회가 재판 당시 제기한 논리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독교법률가회는 “세습금지조항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은퇴한 목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성교회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예장통합 총회가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교회 신사참배, 총회차원에서 회개해야”

‘한국교회 우상숭배 일천만 회개...8·15성회’ 개최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대표회장 윤보환 감독)는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전태식 목사)에서 ‘한국교회 우상숭배 일천만 회개 기도운동을 위한 나라사랑 8·15성회’를 개최했다.

윤보환 한기부 대표회장은 설교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지켜 행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표회장은 “올해는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상숭배 회개를 통해 기도로 하나 되고 다시 예

배를 회복해 선교한국과 민족복음화, 복음통일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000여명의 참석자들은 민족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가 이어졌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전도의 열정을 되살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 평화통일과 동성혼 허용 개헌반대를 위한 기도도 드렸다. 만세삼창을 외치며 교회 사랑의 결의를 다졌다.

한기부 총사업본부장 정영균 목사는 특별기도에서 “신사참배 회개운동이 이 나라와 민족에 희망이 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

“동성애 논하면서 탈동성애 외면은 명백한 인권유린”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국가인권기본계획 전면 수정 촉구

지난 7일 문재인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전격 통과시켰다. 선민네트워크, 대한민족지킴이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전주교인모임 등 63개 범종교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이계성)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탈동성

애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동성애문제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국가인권기본계획의 독소조항들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사발과 혈서를 쓰면서까지 강하게 반발했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을 고발한다

(1)성평등으로 양성평등 가치 훼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기독교인의 종교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NAP 독소조항 개정운동에 착수했다. 4회에 걸쳐 NAP 독소조항이 가져올 폐해를 살펴본다.

“양성평등, 성평등으로 대체 땀 전통적 가족 해체될 것”

교계와 시민단체가 NAP를 반대했던 이유는 ‘국가가 양성서서 성(gender) 평등으로 양성(sex) 평등의 전통적 가치를 해체시킬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성평등, 젠더평등은 ‘인간이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지향성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돼 있어 동성애 양성에 다자성에 등 제3의 성을 모두 포함한다. 문제는 NAP라는 국가정책 안에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문화운동, 각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 수립 등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단어가 27차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은주 전남대 교수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남녀라는 두 종류의 생물학적 성밖에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을 임의로 바꿨다고 주장해도 DNA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생식기관은 남녀 간 결합을

통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독특한 구조와 형태를 갖고 있다”면서 “만약 심리적 정신적 후천적인 젠더를 존중한다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다면 기존 결혼과 가정의 의미는 물론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가족제도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NAP의 독소조항이 한국사회에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된 서구사례를 보면 예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다. 미국에선 성별 정체성을 존중한다면 공립학교에 트랜스젠더를 위한 남녀 공용화장실, 탈모실을 도입했다. 군대에서 동성애자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할 때 13만 달러의 수술비와 호르몬 치료비를 평생 제공한다. 뉴욕시에선 그(he)나 그녀(she) 대신 ‘ze’

나 ‘hir’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동성애자 단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전환 홍보 캠프도 개최했다.

영국에서도 여러 신청서와 공문에 엄마와 아빠 대신 ‘Parent 1’ ‘Parent 2’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놨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선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외국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 잘못된 젠더 평등 정책은 혼인 상속 연금 세금 친권 등 쉼 수 없이 많은 법률관계와 신분관계의 변동은 물론 사회 기초 질서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혁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교계와 시민단체는 잘못된 성평등 용어의 문제점을 지난 4개월간 꾸준히 제기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NAP 설명자료’에서 이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일보도 법무부 인권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역사 바꾼 그날의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YWCA Y-틴, 6개 지역서 일본군위안부 캠페인 전개

한국YWCA연합회 소속 청소년들이 광복절을 맞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행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거제, 대구, 대전, 전주, 진주, 창원 지역에 있는 소녀상 앞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YWCA에 소속된 청소년 회원 300여 명이 참여한다.

한국YWCA 청소년회원 조직인 Y-틴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오후 3시 1분 전국 6개 지역에서 일본군위안부 역사 알리기 캠페인을 벌인다. 삼일절 독립만세운동 정신을 잇는 뜻에서 캠페인 시각을 오후 3시 1분으로 정했다.

Y-틴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세계 1억 인 서명운동(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관)에 동참한다.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팔찌와 배지 만들기, 나비기금 모금 등 지역별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나비기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전 시종폭력 피해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Y-틴은 2016년부터 중점 운동 주제를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정하

고 캠페인, 플래시몹, 국제 홍보, 서명 운동 등을 진행했다. 올해도 ‘지난 날 잘사는 미래의 발견을 위한 나’는 슬로건 아래 ‘올바른 역사인식’을 중점운동 주제로 정했다.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된 Y-틴은 35개 지역, 200여 개 학교에서 5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캠페인 장소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소녀상 앞(거제YWCA), 대구 2·28공원 소녀상 앞(대구YWCA), 대전시청 소녀상 앞(대전YWCA), 진주 중앙동 소녀상 앞(진주YWCA), 경남도청 임대(창원YWCA), 전주 풍남문화장 소녀상 앞(광주, 군산, 남원, 목포, 순천, 여수, 익산, 전주 8개 YWCA)이다.

8월 14일은 제6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이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일을 기념해 2012년 제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교토소 선교칼럼 (48)

이영희 목사
교토소 교목, TPPM대표



기독교서적들도 기부하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라타서 성경책을 보니 50불이 넘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얼마 후 성경책을 받은 그 재소자의 얼굴은 환히 빛나고 행복해 보였다.

5. 베트남 성경책

어느 날 교도관으로부터 재소자들의 싸움을 멈추게 한 베트남 남자에 대해 듣게 되었다. 몇몇 재소자들이 막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남자가 재빠르게 그 중앙에 들어가 두 손으로 막는 바람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순발력의 남자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다. 영어책을 못 읽어서 베트남 성경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순문 끝에 한 베트남 교회와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성경책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성경책은 도착하지 않았다.

하루는 오찬약속을 위해 플라라도 스프링스로 가는 도중에 오늘은 꼭 베트남 성경책을 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즉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온라인으로 베트남 성경을 파는 서점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점심식사가 끝난 후에도 친구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다. 생각 끝에 베트남 식당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서점 주소를 알려 주었다. 찾아가보니 서점이 아닌 큰 교회였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저는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서 일하는 목사입니다. 베트남 성경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교회 구내 서점에 가서 하나 가져가세요. 돈은 안내셔도 됩니다.” 젊은 목사가 말씀하셨다.

반가운 마음에 서점으로 가보니 젊은 여자 두 명이 있었다. 성경에 대해 물어보니 성경도 없음을 뽀너러 베트남으로 주문해도 배송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비싸서 주문도 받을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다. 주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반드시 오늘 해결해야 하는데 실망스럽고 막막했다. 다시 목사님을 찾아 갔다. 그리고 서점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더니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이것을 재소자에게 가져다주세요.” 목사님은 내게 조그만 성경책을 내미셨고 나는 “신약만 가지고는 안돼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을 주세요.”

다른 방으로 들어가더니 목사님은 큰 성경을 가지고 나왔다. 나는 그것

을 받아 들고 너무 기뻐서 “얼마지요?” 하고 물었다. “아닙니다. 재소자에게 갖다 주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교도소에 한 번 오시면 어떻게요? 그 재소자도 만나서 격려해주시고 베트남어

목사의 임무 중 가장 힘든 것은, 재소자 가족이 죽거나 심한 중병이 들었을 때 그 소식을 재소자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어느 날 신디에게 갑작스런 남편의 부고를 전했다. 신디는 복도를 걷는 내내 울부짖었다. “믿을 수 없어요. 며칠 전에도 통화 했는데...메리를 불러주세요.”

그녀는 메리라는 여자 재소자로부터 위로 받기를 원했다. 잠시 후

6. 위로

왜 그녀를 찾았는지 알 수 없었다. 메리는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에게는 충격을 받고 아픈 상황에 있는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듯했다. 어떤 때는 목회자보다도 같은 재소자들끼리 서로 공감하고 어려울 때 돕는 경우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감사했다.

7. 크리스마스

이것은 2004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일어난 일이다. 먼저 출감한 어떤 사람이 함께 수감되어서 남아있던 다른 열 명에게 10불씩 보냈다. 10불이란 돈은 누군가에게는 푼돈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큰돈이다. 한 사람의 선행이 여러 명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물한 것이다. 또 하나 F동에서 들은 카를로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감동적이었다.

“도넛”-카를로스 탄구마
여섯 개의 감자를 가져 오는 동안 F 1300만큼 궁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선행으로 인해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 즉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었다. 돈이 없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 그의 얼굴은 나누는 기쁨으로 빛났고, 받는 이들의 얼굴은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비밀의 산타 선물을 뜯는 시간이 돌아왔다. 나는 도넛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를 상징한다고 믿는다.

또 스토브머리로 말끔하게 면도한 남자 재소자는 머리빗과 샤워캡 선물을 받았다. 모두들 영종하지만

재밌는 선물로 인해 웃음꽃을 피웠다. F 1300에서의 크리스마스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35-40).

크리스마스 선물의 기적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잠시나마 맛보게 해주었다. 도넛을 받고 나서 한 시간 후에 누군가 보내준 돈을 받기도 했지만 그 소중한 도넛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빛나는 도넛이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파라과이

2018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학교와 신학교 개학을 하며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고 주님 이름 높이며 주님나라 왕성케 함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사랑의 선교헌금에 감사드립니다.

1. 기독교 예술 유, 초, 중, 고등학교는 새 학기를 맞아 입학



식과 각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추고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 통해 복음이 잘 전파되고

2)KWMA, NCOWE 참석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2019년 현재 2,850여명이 198개국에서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는데 그 중 1,602명이 한자리에 모여 4차원 세계에서 어떻게 발맞추어 복음을 끝까지 함께 잘 전할까 전략을 짜고 많이 배우고 가르치며 공유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좋은 도전과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3)GMS 세계선교대회 참석
합동측 GMS는 2,550여명 선교사가 세계 98개국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 전파에 열정을 쏟고 있는데 그 중 800명을 초청하여 복음의 다리, 세계의 다

리, 차세대 다리 역할을 어떻게 할까 주제에 걸맞게 많은 것을 배우고 전략을 짜고자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곳의 집회는 마지막 시대에 이 혼란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세대에,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로 통해 파라과이에 아름답게 복음이 심어져서 후대에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2. 각종 모임 참석하여 많이

리, 차세대 다리 역할을 어떻게 할까 주제에 걸맞게 많은 것을 배우고 전략을 짜고자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곳의 집회는 마지막 시대에 이 혼란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세대에,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바로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이 전략이고, 이 약한 세대에 성경에 벗어나지 않고 예수가 변질되지 않게 땅끝까지 바른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3. 파라과이에 여섯번째 AmorPaz 개척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사 교회가 없는 동네에 전도하던 중 믿는 신자를 만나게 되어 개척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0여명이 모이고 있고 형을 마련하여 예배 초소를 짓고 동네를 복음화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 파라과이 장로교신학대학교와 기독교예술 유초중고등학교는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험을 잘 치루고 학생들의 미래 지향적인 인격교육에 더욱 앞장 서고 있습니다.

5. 여섯번째 세운 개척교회 AmorPaz(사랑과평화)로 시작, 2018년 겨울 성경학교를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하와이 AIEA교회 단기선교팀이 오셔서 영적전쟁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랑과평화, 베들레헴, 기독교 예술학교, 할렘루아, 주님의 교회, 갈보리, 기쁨과평화 교회에서 T셔츠 1600장을 만들어 복음의 대 전치를 하였습니다. 영적수확이 잘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앞으로의 기도 제목 중

1)신학교 기숙사 신축 30만 불을 놓고 기도중입니다. 타국에서 복음적인 신앙의 학사증을 취득하기 위해 문외가 있어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분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도시에서 분교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교회와 학교와 신학대학에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3)2018년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그동안 개척한 곳을 중심으로 겨울성경학교에 큰 영적 수확을 부으셨는데 마음에 둔 추수가 이어지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파라과이에서 정글대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

amorr1004@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ail: 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8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ail: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곤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ail: www.nachimban.org 주일 학교: 오전 10:00 담임목사: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626)691-0691, (F) (626)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0:00 담임목사: 오전 9:30 E-Mail: www.nachimban.org 주일 학교: 오전 10:00 담임목사: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토요일학교: 오전 6:00 토요일학교: 오전 6:30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ail: Youth@denndun.com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949)854-4010 / E-mail: denndun@bkc.org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어학교: 오후 1:20 영어학교 (영스-KDC, 킹덤도원센터) 주일 학교: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중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교회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발송),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H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00(매일)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www.mpcia.org Tel: (213)381-2202 / Fax: (213)381-2535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장문) 주일학교: 오후 2:00(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후 6:00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30 성일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delthe@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김호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아동/청소년부: 오전 11:00 청년 성경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성령강화(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Driv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주일 학교: 오전 6:00(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Pl., Los Angeles, CA 900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장문) 주일학교: 오후 2:00(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금요성령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온누리개척기도회: 365일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6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영어)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강화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중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전 11:0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 e-mail: pastor@laccornerstone.com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6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ch.com / e-mail: pastor@lac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3303	토렌스노교회  담임목사 : 김구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30(청년) 청요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 보고]

“2018 여름, 세계를 뜨겁게 품은 4/14 윈도우 어린이선교”

뉴욕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 새 리더십은 올 여름에도 '4/14 윈도우 선교사역'을 통하여 지구촌 곳곳을 뜨겁게 달구며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지난 2009년, 김남수 원로목사와 루이스부시 박사(10/40윈도우 주창자)의 만남으로 4세에서부터 14세까지의 지구상 18.5억명의 어린

이들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시작된 '4/14 윈도우 선교사역'은 축구, 뮤지컬, 영어교육사역, 파워하우스, 교회지도자 세미나 등으로 잠자고 있는 기성세대와 사역자들을 깨우는 사역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1. 멕시코 3개 도시 '축구선교' (7/11, 14, 21)

매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구선교는 올해는 멕시코 3개의 도시(파츰카, 치말화칸, 멕시코시티)에서 열었다. 이영무 목사가 이끄는 할렐루야 축구팀이 한국에서부터 멕시코로 직접 와 세 도시들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프로팀들과 정상급 경기를 치렀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한국의 독일 전 승리로 인하여 멕시코가 어부지리로 16강에 오른 직후여서 각 경기장에 운집한 멕시코 국민들은 경기장에 "한국,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제 나라 한국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



힌 태극기와 현수막을 가지고 나와 파도타기 등 경기마다 기쁨과 환호로 관 람했다. 특히 멕시코시티 경기에서는 이번 러시아 월드컵 경기를 진행한 심판진들이 경기를 진행했다. 게임을 위하여 현지 주지사 및 기독교 사역자 등이 참여하였고, 한국영사관의 문영주 영사도 참여, 멕시코 땅에 부는 코리아 바람을 귀한 선교의 기회로 삼았다. 세 번의 게임

을 통해 약 35,000여명의 관중이 참여 하였으며, 입장한 어린이들을 비롯한 모든 관람객들에게 복음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만화성경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빵과 음료, 그리고 학용품을 정성스럽게 개인포장으로 준비하여 전달하였으며, 어린이들은 만화성경을 꺼내 읽는 모습이 도우미로 참가한 선교팀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었다.

각 하프타임에는 할렐루야 축구팀의 율동과 프라미스교회 국악팀 공연이 있었으며, 첫째, 둘째 경기는 김남수 원로목사와 세 번째 경기는 허연행 담임목사의 인사와 환영, 복음제시 및 초청을 통하여 수많은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로운 장면이 연출됐다.

2. 케냐 나이로비 '히즈라이프' (7/12-15)

'히즈라이프' 공연이 올해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무대에 올려졌다. 뜨거운 사랑을 상징하는 케냐 땅에 히즈라이프 공연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전제지는 순간들이었다. 4일간(7/12-15) 5회 공연으로 진행된 이번 케냐 히즈라이프는 5회 매 공연마다 4,000석 전석 만석이었다. 특히 공연문화가 거의 전무한 현지에



서 무대와 소품, 조명들을 준비하는 작업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려움이었지만 뮤지컬 팀은 제작, 출연팀

이 모두 하나 되어 예정된 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케냐공연은 작년 스페인 사라고사 공연 시, 히즈라이프에 헌신한 스페인 팀들도 동참, 다국적 구성이지만 조화롭게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다. 더 감사한 것은 각 공연 후, 초청의 시간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3. 파나마 '어린이사역자 컨퍼런스' (7/22-24)

김남수 목사는 멕시코 1, 2차 경기를 마친 후, 곧바로 파나마로 가서 어린이 사역 컨퍼런스를 진행하였다. 교회와 선교의 핵심은 다음세대의 어린이들에

게 있음을 강조하며, 활발히 진행되어 지는 '4/14 윈도우'와 '파워하우스' 등에 대해 교회지도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삼일간의 컨퍼런스에 매회

1,000여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중남미 대륙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모였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현지에서 '4/14 윈도우'와 '파워하우스' 사역이 활발히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4. 방콕 207(7/17-21), 코리아 77(24-27) '에클레시아'

방콕, 코리아 에클레시아는 김도윤 전도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이번 방콕 에클레시아는 120명, 코리아 에클레시아는 170여명이 참석하여 큰 은혜를 체험했다. 에클레시아는 현대 성



도들의 영적침체를 일깨우는 '평신도 영성훈련'으로써 이미 뉴욕과 한국, 아틀란타, 방콕, 비엔나, 멕시코 등지에서 개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에클레시아를 통해 기도를 회복하고, 영성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77기 뉴욕 에클레시아는 오는 8월 26-29일에 업스테이트에서 개최된다.

올해도 연인원 150여명의 성도들이 각각 선교지 현장에 나아가 '4/14 윈도우' 선교사역을 감당했다. 매년 그랬지만 프라미스교회는 이번에도 '1불의 기적'을 체험했다. 총 5만여 명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특히 경기장과 공연장에 나온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만화성

경, 학용품, 음료와 빵이 든 선물이 제공되었는데 모두 '1불의 기적'을 통하여 모아진 현금으로 가능하였다. 이번 선교사역에 직접 나간 성도들은 본인들의 항공료 및 체류비를 자비량으로 헌신하였으며 대부분 여름휴가를 내고 현장에 나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으로 가지고 이룸도 빛도 없이 사명에 임하였다. 현재 프라미스교회 EM과 Youth 단기선교팀(7/28-8/9) 78명은 멕시코의 치아파스와 텍스틀라에 나가 선교 중에 있으며 1세 선교를 이어 차세대 선교의 꿈을 꾸고 있다. (프라미스교회 제공)

| 선교 보고 |

케냐 & 에콰도르 단기선교

2018년은 가장 은혜로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열려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번 여름의 모든 선교 스케줄을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 11월 말에 있을 또 다른 지역의 해외선교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11월말에 있을 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케냐 캅시고리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번 아프리카 선교여행에 함께 참여했고, 은혜로운 찬양을 케냐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제 아내의 사역을 케냐 목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에콰도르 단기선교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제 아내도 함께 가려고 했으나 떠나기 전날 심한 기침과 열로 인해 집 싸놓고도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폐렴 진단을 받고 두 주간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선교에 동참한 김해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양진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행은 9일 밤늦게 가야킬에 도착했고 다음날 꾸엥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3일에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계획된 모든 일들을 은혜가운데 잘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행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한 것은 안드레아를 다시 만난 일입니다. 지난해 안드리아는 예상치도 않았는데, 키토에서 만나 제 강의 전체를 무상으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제 강의를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는 콜롬비아 사람으로 일년에 두어번 키토에 오는데, 이번에 계획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극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열린 시장 어린이 집회와 리더십 강의를 통역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호와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간증들을 나누고 싶지만 지면의 한계로 이 정도에서 마칩니다. 제 아내와 저는 여러 동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단기 선교에 필요한 후원을 채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믿기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신실하신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교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기도제목

▷케냐 캅시고리아 훈련 센터에 사역용

모토 바이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셔서 이번에 기도 중에 모토 바이크가 1대도 아니고 2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케냐 사역에 모토 바이크를 헌물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케냐에서 서북쪽으로 자동차 타고 약 10시간 정도 들어가는 산악지대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필요가 너무나 큽니다. 이곳에 사는 부족 이름은 마라켓 부족인데, 이곳에 270여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교회 가운데 목회자가 있는 곳은 오직 80여개 교회뿐입니다. 이곳에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 훈련이 계속 이루어지길 기도해 주십시오.



▷오펜리아는 열린 시장입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나라 5일장이 서는 것처럼 열립니다. 그런데 이진호 선교사님 내외께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에콰도르 사람도 있지만 대개가 인디애나(인디오)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이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KCM 대학생 선교회가 에콰도르에서 큰 수고를 했습니다. 원래 이들은 니카라과로 갈려고 했는데, 정치적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뒤늦게 기수를 돌려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두 주간은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에서 사역을 했고, 나머지 한 주간은 콜롬비아 국경 근처 마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렌트해서 살았던 곳의 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해서 60일 안에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87세난 장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2층은 안되고 1층이여야 하는데, 집구하기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남주주 주성철 목사
The Jus4Jesus(LASKC)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Food in Bible-꿀(Honey) (3)



최성은 (Ph.D, RD, 쿼츠칼리지 교수)

“쓰면 뵈고 달면 삼킨다”라는 말이 있다. 막 태어난 신생아에게 실험을 해보았더니 이 말이 꼭 들어맞았다 한다. 쓴맛의 물질은 혀로 밀어내고 단맛의 물질만 삼켰다는 것이다. 이것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연결 지어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당분이 단맛을 지녔기에 단맛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반면 쓴맛은 약이 되는 성분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약은 과하면 독이 되기에 꼭 필요한 양만 삼키라고 쓴맛을 인간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단맛을 주는 감미료로 성경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꿀에 대하여 이번 글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성경에 나타난 꿀

성경 속 최고 감미료... 벌꿀 외 과일즙으로도 표현 즐거운 말이나 지혜처럼 건강 돕는 치료효과 있어

성경이 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보아 꿀은 성경에서의 최고 감미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아들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나라(잠24:13)”,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겔 16:13)”,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였도다(사81:16)” 등등.

또한 성경에서는 꿀이 진귀한 물품, 매력적인 선물이니 극진한 대접 음식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여로보암이 그 아내를 살로로 보내어 거기 선지자 아히야에게 자기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을 물어보라고 부탁을 할 때 선지자에게 가져가는 선물로 꿀을 가져가게 한 기록이 있고(그대의 손에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왕상14:3),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진압을 위해 마하난에 이르렀을 때에 암문 속에서 속한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대접한 음식중의 하나가 꿀이었다(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렀다 함이더라, 삼하17:29).

또 다른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송아이나라”(창43:11).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대하31:5).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이 되었음이여 밧과 밭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겔27:17).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너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이라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마시고

많이 마시라”(아5:1).

꿀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노페트’(흐르는 꿀 즉 송이꿀)와 ‘데바시’라는 단어로 언급되어 있다. 이중 후자의 단어는 벌꿀뿐 아니라 과일즙도 가리킬 수 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멜리’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야생의”를 의미하는 형용사 ‘아그리오스’와 함께 나올 경우 야생벌이 만든 꿀을 의미한다.

벌꿀

꿀벌은 나무나 바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소에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한 경우에는 심지어 죽은 동물의 사체-아마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햇볕에 말라버린 것-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삼손이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꺼내 먹었던 것이 그 경우였다(“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러서 먹게 하였으니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14:8-9).

벌꿀은 꽃과 과일에서 얻은 화밀(nectar)로 만들어진다. 화밀을 모아 벌집에 넣어 두는 과정에서, 벌의 몸에서 나온 특정한 화학 물질들이 첨가된다. 화밀에서는 물이 일부 증발해 나가고 그러한 화학 물질은 화밀을 꿀로 변화시킨다.

기력을 북돋아주는 이 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공급하신 양

식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어 있는데 나무가 거의 없는 그곳에서 이 백성은 “바위에서” 즉 벌집이 바위가 많은 지역에 지은 벌집에서 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신32:13).

히브리어 데바시는 과일-무화과, 대추야자 등-의 주스 즉 즙을 가리킬 수도 있다. 많은 경우 독자는 벌꿀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문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레위기 2:11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제단에 바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은 과일즙이었던 것 같다. 과일즙은 쉽게 발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벌꿀이 아니라 는 점은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구절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그 “꿀”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첫 열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한 꿀은 대부분 양봉 수확물이 아닌 들꿀이었으므로, 히스기야가 제사직을 지원하도록 백성을 고무하였을 때 첫 열매로 바쳐진 “꿀”은 틀림없이 과일의 주스

즉 즙이었을 것이다(“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대하31:5).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이 요한은 나타낼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마3:4). 이 ‘석청’은 보통 바위들이 벌이 만들어 놓은 벌집에 가득한 벌꿀을 연상하지만 세례요한이 먹은 석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세례요한이 있었던 광야에는 꽃이 없기에 벌도 없고 그래서 벌꿀도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세 종류의 꿀(벌꿀, 종려나무꿀, 쥐엄나무꿀) 중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꿀은 종려나무꿀(시랍)인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여 곡식과 나무열매를 다 수확하지 않는 율법(“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23:22)에 의해 남겨진 종려나무 열매(대추야자)가 추수가 지나 땅 바닥이나 돌 틈 사이에 떨어져 풀처럼 달게 된 것이 세례요한이 먹은 석청이라는 것이다. 즉, 세례요한은 극빈자가 먹는 것을 곧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며 사역을 했다는 것이다.

cse1001@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왕상2:24-27)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 그 나라가 시 작부터 심히 견고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즉시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왕의 후궁을 아내로 달라고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아도니아를 그날로 죽여 버렸습니다. 어머니 밧세바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나라를 해치는 일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또한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켰는데, 제사장은 하

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그냥 고향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나라의 일꾼들은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 볼지라도 늘 오래참고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예수와 노가 분명한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 자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화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왕상2:26-27)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왕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고 다윗왕이 모 든 환난을 받을 때 같이 동거동락하며 수고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만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조금 징계하고 다시 회복시켜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완전히 파면시켜 고향으로 돌려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1인 대제사장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제사장이 있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독 대제사장 체 제로 일원화함으로써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 계통으로, 엘리 아들들의 못된 일로 후손들을 제사장 반열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수 너는 가서 저를 쳐라(왕상2:28-31)

본문에서 요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돌아움이 없는 회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아도니아야가 죽고 아비아달이 파면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무 조건 제단 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진정한 회개 없이 제단뽕을 잡았고 이미 고의로 피를 흘린 것을 만천하가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죽여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복중에 하나는 우리는 공물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진정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공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물로 즉시 용서해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왕상2:32-35)

요압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한가지 이유는 다윗왕도 모르게 의롭고 선한 두 사람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요압을 처벌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왕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렀다는 것이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윗왕이 깨뜨렸다고 하는 좋지 못한 오

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웠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다윗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일을 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자세로 살아갈 때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금 정녕 죽임을 당하리니(왕상2:36-41)

본문은 시므이를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교훈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그에게 살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가자 가드 왕에게 나아가서 잡아왔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을 나가면 죽는다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서로 맹세했는데 이 맹세와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므이가 암살됨의 반역으로 인해

광야로 피신할 때 다윗왕에게 저지른 악행은 모두 신하들과 백성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용서했고 솔로몬왕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불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평소 하나님 말씀에 우습게 알다가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죽음을 당한 시므이를 보면서 더욱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토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왕상2:42-46)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왕이 가장 힘들 때 시므이는 아무 이유 없이 다윗왕을 저주했습니다. 신하들은 당장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지만 다윗왕은 참았습니다. 나중에 암살됨이 죽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시므이가 배반인 사람 일천명을 이끌고 다윗왕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신하들은 시므이를 죽여버

려야 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에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까닭 없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그 말한 대로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무슨 말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축복하며 소망을 주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쌓아야 하겠습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백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오후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벨앨교회 담임목사: 백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11:30 토요찬양예배: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찬, 찬양: 오전 10:45 찬, 찬, 찬양: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508)435-4579, Fax. (704)529-0900 2 Main St., Hop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세백기도: 새벽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오후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cs.org</p>	<p>안다루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8,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jehs.org</p>	<p>알라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org</p>	<p>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전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p>	<p>엘파소델리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해(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킬린노루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오후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세백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aletre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전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백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p> <p>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cu.org</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앙과 삶



하형록 목사
(갈보리비전교회 담임, TimHaahs 회장)

“세상의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의 고속도로로!” (2)

스물아홉 나이에 중역의 자리에 오르고 성공가도를 달리던 서른셋의 어느 날 그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 '심실빈맥'이란 판정을 받고 생사를 오가야 했던 그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넘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심장이식 수술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는 잠언 31장에서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기업 '팀하스(TimHaahs)'를 시작했고 잠언 31장에서 뽑은 주옥같은 성경의 원리들을 그대로 실천하며 비즈니스계의 하나님의 모델로 쓰임 받고 있으며 현재 갈보리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본 글은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에 수록된 간증을 발췌 정리했다.

한센병 환자촌에 13년을 살면서 우리 가족끼리 시내에 나가 외식을 한 적이 한두 번 밖에 없는데 한번은 부모님이 아이스크림을 사 주셨다. 그런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던 나는 아껴 먹는다고 할아 딱다가 천천히 한 입 배어 물었는데 그만 녹아서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눈물이 쫄끔 날 만큼 아까워서 부모님을 쳐다보았지만 부모님은 안쓰러워할 뿐 더 사 주실 돈이 없었다. 가게 주인은 야박하게도 내가 떨어뜨린 것이니 다시 줄 수 없다고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나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이 두고두고 아까웠다.

외로운 한센병 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부어져 우리는 그곳에서 6년을 더 살다가 그곳을 방문한 미국 선교사들의 권유와 배려로 필라델피아로 건너오게 되었다.

파이럿을 꿈꾸던 아이 미국 명문대 건축학도로

초등학교 졸업을 두어 달 앞둔 1969년 12월, 드디어 나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은신이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도착했다.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형은 군복무 문제로 출국이 늦어져 2년 뒤 예야 미국으로 올 수 있었다. 당시 아버지는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우리보다 1년 먼저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미국은 매우 크고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막상 와 보니 내가 살던 부산보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았다. 일단 모든 집이 단층집인데다 변화한 거리도 없이 시골처럼 조용했고 더구나 아버지가 신학생이다 보니 사는 형편도 한국에서 보다 나을게 없었다. 책상도 없고 전축도, 라디오도 없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무척 실망했다.

게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부산에 살 때는 아버지는 목회자였고 돼지고 닭을 키우던 한센병 환자들 덕분에 고기와 달걀 정도는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미

국에 오니 아버지는 그저 가난한 신학생에 불과한데다 네 명의 아이가 딸린 가장으로서 온갖 허드렛일을 다 해야 했다. 낮에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묵수 보조를 하고 밤이면 야간 청소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한때는 밤새 택시 운전전을 하기도 했다. 어머니도 가정부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봉제공장에서 바느질을 했다.

내가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은 함께 일을 나가면서 부터다. 나는 열세 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큰 빌딩을 청소하러 다녔다. 아버지 혼자 하려면 밤을 꼬박 새워야 하기 때문에 나를 데려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화장실 청소만큼은 나에게 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하룻밤에도 두세 군데씩 다니며 일을 해야 했던 아버지는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자신들을 위해 그 모든 고생을 묵묵히 감당했다.

아버지가 심야 택시기사를 할 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소위 택시기사라는 사람이 길을 모르는데다 승객이 하는 말도 알아듣지 못했으니 상황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저 뒤에 앉은 손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보다 못한 승객들이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면 꼭 참고 다 듣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곧 길을 익혀서 나중엔 팁 받는 재미에 날 새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그 때만해도 동양인이 별로 없어서 "당신 어디서 왔나? 왜 왔나?"고 묻는 사람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온 신학생이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은 팁을 더 챙겨주곤 했다. 가난한 우리 형편으로선 그 팁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내게 식당에 가든 호텔에 가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팁을 많이 주라고 당부한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형과 나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심했다. 우리가 미국에 간 것이 1969년인데 1968년에 흑인 인권운동의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흑백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당시 인구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동양인들에 대한 편파도

심했다. 당연히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교에서 유일한 동양인이어서 놀림을 받는데다 수업 시간에는 영어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 여간 망고생이 심한 게 아니었다. 특히 아이들이 나를 부를 때 '하'라고 부르지 않고 '하하하'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문둥이라고 놀림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한 것에 비하면 참을 만 했다. 한센병 환자촌에서 보낸 시간이 미국 생활의 어려움을 잘 넘기는 훈련이 되었던 것이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아버지는 작은 교회를 개척했다. 사실 아버지는 타고난 설교자였다. 한센병 환자촌에서 살 때도 아버지는 여러 교회에 부흥강사로 초빙되어 설교를 많이 했는데 가끔 나도 따라가서 듣노라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미국이었고 당시의 한인들이 많지 않던 때라 교회 개척 후에도 우리 집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다 덕분에 형과 나는 공부하면서 일도 해야 했다.

미국은 여름방학이 길어서 거의 석달 가량 되는데 학생들은 그 기간에 일을 해서 1년 공부할 돈을 모으곤 한다. 나도 열세 살 무렵부터 여름방학에 일을 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버지와 야간 청소를 하거나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었다.

보통 아침 7시부터 밤 6시까지 온종일 페인트칠을 했는데 실내 페인트칠은 그나마 쉬었다. 하지만 수입이 적었다. 반면에 외부 페인트 칠은 힘을 들이지만 돈이 되었다. 특히 외부 페인트칠을 하려면 사다리를 놓고 건물 꼭대기 층에서부터 기종의 페인트를 깨끗이 벗겨내야 하는데 그게 보통일이 아니었다. 얼굴이 페인트 껍질로 뒤범벅 되도록 반나절 이상을 벗겨내야 했다.

그러다 독립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열여섯 살이 되면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지 않고 노인케어센터에서 청소하고 빨래 수거하는 일을 했다. 나중에 아버지가 어느 미국인 교회의 부목사로 가신 뒤에는 그 교회 청소 일을 했다. 대학에 들어간 뒤로는 학교 건축부에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다. 당시 직장인들이 보통 주당 40시간 일을

했는데 나는 주중에 하루 4시간씩 20시간 일을 했다. 주말에 일한 것까지 합치면 30시간이 넘었다. 학비를 벌기 위해 한 일이지만 대학에서 일할 때는 건축과 관련해 상당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사실 어릴 때 꿈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 꿈은 두 살 때부터 품은 꿈이다. 비행기 장난감을 보면 눈을 떼지 못했지만 나는 한 번도 장난감 비행기를 가져 본 적이 없다. 대신에 직접 나무로 비행기를 만들어 고무줄로 당기면서 놀았다. 이 꿈은 고등학교 때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비행기 조종사는 한번 집을 떠나면 최소 1, 2주는 집에 돌아오기 어렵다"면서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는데 그 순간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어떤 경우라도 가족을 떠나기는 싫었기 때문이다.

열두 살에 미국에 왔지만 언어 장벽은 침사리 무너지지 않았다. 영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았다. '미국이야말로 먹고 살긴 어렵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웃에 사는 한인이 "동양인은 기술을 배우는 게 좋다"고 조언해 주었다. 마침 그 분이 건축 관련 일을 했는데 건축은 길도 놓고 건물도 짓고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서 설명해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70년 초의 일이나 건물은 지금처럼 화려하거나 독특하지 않았다. 건축의 미는 고려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똑딱똑딱 건물을 짓는 식이었다. 땅이 좁은 우리나라가 볼품은 없지만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짓는 식과 같았다.

1960년대의 미국은 유럽식의 아름다운 건물 같은 건 비싸서 지을 수가 없었다. 기술과 제철산업이 발달하면서 건축 붐이 일어나기는 했으나 그저 건물을 올려서 뒷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건축이었다. 내가 보기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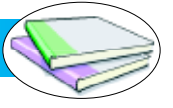
그래도 공부는 마치고 했다. 하지만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미국이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다.

가정부에 샴바느질까지 하며 뒷바라지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는 누구보다 빨리 취직을 해야 했다.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어린 마음에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는 3년제 고등학교도 2년 만에 마치고 4년제 대학도 3년 반 만에 끝냈다. 구조공학 분야 자격증도 남들보다 4-5년 빨리 취득했고 이후 건축 디자인 자격증도 땀다. 어머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은 무조건 붙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 즈음 불경기도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원자력 발전소였다. 거기에 취직해서 몇 년간을 열심히 일했다. 그러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발전소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고 갈 워커 회장이 창업한 주차 건물 전문 건축회사인 워커파크 컨설턴트(Walker Parking Consultants)에 입사하게 되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책 소개



“솔로몬왕을 찾아간 스바여왕” 후편 저자 정권수 선교사

온두라스 선교사로 사역했던 정권수 선교사의 저서 “솔로몬왕을 찾아간 스바여왕”(The Queen of Sheba Visits King Solomon) 후편이 전편(2017년 8월 발간)에 이어 최근 출간됐다. 전편은 소설이 주인공인 페론 교수, 여호수아 랍비, 사라, 미첼 교수 등



성전 건축-연약케 옮김-승리자로 오시는 예수님

4명을 통해 에티오피아에 있는 연약케를 찾아서 이야기를 전개했다. 이번 후편에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연약케를 이스라엘로 옮겨와 새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자로 오신다는 이야기다.

정 선교사는 1)성전을 건축하고 2)연약케를 옮겨 오고 3)예수님이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을 접목하는데 힘쓰고 불가능해 보였는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발표하고 지난 5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기뻐했다.

“3000년전 미스터리”라고 명시한 이 책에서 정 선교사는 “이번에 나는 혼자만 아니라 사실을 알았다”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데이빗 M. 롤(David M. Rohl, 고고학자)가 쓴 '시간의 풍상(A Test of Time)'에 담긴 고고학적 유물, 장소, 지명, 각종 자료를 찾아 접목했다”고 밝혔다.

정 선교사는 “이제 남은 것은 연제 연약케가 새 예루살렘을 옮겨질지,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자로 오시기에, 장차 하나님의 통치를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들어 그 사실을 옮겨가고 싶다”고 말했다.

책은 총 237페이지로, LA에 있는 CNC 프린팅에서 인쇄했다.

▲저자 이메일: ksjung818@gmail.com
(유원정 기자)

<10면에서 계속>

2부 찬양과 선교나눔 순서는 박마이클 목사(한마음 침례교회) 사회로 시작돼 필그림선교부용단(단장 최운자), NY Chinese Christian Choral Society, 에벤에셀 선교교회(최창섭, 이재홍 목사) 다민족찬양팀, 고려인들이 모인 브루클린 율네이션교회(레오나드김 목사), 중국글로벌교회(박마이클 목사), 이민자보호교회의 찬양과 다카드리며 정호진 형제 간증, 재활기관인 Anchor House Choir, Alice Laurissa Jane Music 어린 이들의 찬양, 뉴욕호신장로교회 찬양으로 이어졌다. 중간에 한진원 선교사의 간증시간도 있었다.

뉴욕장로연합회는 찬양에 참가한 다민족 교회 및 기관, 그리고 한인 단체에 500달러씩 선교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어 준비위원장 정권수 장로의 인사 및 광고, 뉴욕목사회 문석호 회장의 마침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8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은혜받는 습관 데이비드 마티스/생명의말씀사	어머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 한국문화출판/류태영 외 8명	아멘 다음 이 중요 하다 한홍/규장	살 피 심 김영재/두란노	페 이 버 하형록/침림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독일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ilya.com				